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Task of Korean Church in the Conflicting Context of
Multi-Culturalism & Nationalism

■ 임성빈 Yim, Sung Bihn

■ 장신대 교수, 기독교와 문화
■ Professor,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21세기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는 남과 북의 통일이다. 그러나 더욱 평화스러운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남과 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토대인 민족주의와 이른바 단일민족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다문화시대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다문화사회를 가능케 하는 배경으로서의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성격과 민족주의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화 동향 소개와 신학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

한 사회적 갈등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건설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 섬김을 위한 도구로서 세워짐에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1.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상황과 과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인 2010년 현재 120만 명, 이들의 2세는 12만 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닐 나이의 7~18세 청소년은 4만 6,159명. 그러나 실제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3만 1,788명 뿐이다.¹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도 크지만 그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다는 면에서 급격한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용력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제기한다. OECD국가 중 한국의 거주 외국인 수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를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를 향한 변동이 현실화됨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는 2050년 98만 2,7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손을 합친 인구는 216만 4,800여 명으로 늘어나 총인구의 5.11%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 세대로 갈수록 다문화 진행 속도가 빨라져 2050년에는 영아(0~2세) 3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된다.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인종적, 민족적으로 완전한 다문화사회가 된다는 얘기다(한국일보 2011-5-12). 실제로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크게 늘었다.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3만 40명으로 2005년(6,121명)보다 5배 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¹ 동아일보, 2011-5-23

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2. 다문화사회의 배경: 가속화되는 세계화

다문화사회의 부상은 우연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문화사회를 촉진하고 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야 할 만한 요소는 가속화되는 세계화 현상이다. 아파두라이(Appadurai)의 통찰력 있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은 다문화사회를 촉진하는 세계화의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³

문화의 지구화의 첫 번째 차원으로 아파두라이는 인간환경(Ethnoscapes)을 제시한다.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예컨대 여행자, 이민자, 도망자, 망명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말한다.⁴ 시·공간의 압축으로 대표되는 가속화되는 세계화는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와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국 다문화사회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매체환경(Mediascapes)을 말한다. 이는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전자매체의 능력을 말한다. 매체환경은 이미지들, 이야기들 그리

고 인간환경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목록을 전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그 세계 안에는 세계의 상품과 세계의 뉴스와 정치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 그것들은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고안된 이미지 중심적이고 이야기에 근거한 설명들이다.⁵ 이러한 매체환경은 결국 지정학적 차이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문화들을 한정된 시·공간 안에서도 포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가능하게 하였다.

세 번째로, 이념환경(Ideoscape)인데, 그것은 주로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차원에 관한 것이며, 많은 부분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반이데올로기 운동과 관계되어 있다. 사실상 이것들은 계몽주의 세계관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몽주의 세계관은 사상의 연결, 용어와 이미지들, 넓은 의미의 자유, 복지, 권리, 주권, 대표성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민주주의로 구성되어 있다.⁶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로부터 모색할 수 있다.

네 번째 차원으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술환경(Technoscape)이다. 이는 기술의 세계적 현황으로 기술이 이전에는 넘나들 수 없었던 경계선을 극복하고 현재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술의 불균등한 분배,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환경의 특성들은 점진적으로 분명한 경제적인 규모와 정치적인 조정 또는 시장의 합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금 통화와 정치적 가능성과 그리고 단순노동과 고도의 숙련된 노동의 유용성 등의 복잡한 관계들에 의해서 이끌려질 것이다.⁷

마지막으로 문화의 지구화의 다섯 번째 차원으로 아파두라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금융환경(Finascapes)이다. 세계자본의 축적방법과 상황

² “다문화가정의 4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에 밀집돼 있는데다 다문화 가정은 이혼 비율이 일반 가정의 7-8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언어와 경제적 문제, 가정 불화의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11-4-2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31% 정도가 학교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다. 숫자로는 1만 명 이상의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 울타리 밖에 방치된 셈이다.

³ Appadurai, *Difference in Global Cultural Economy*, in Mike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0), 296.

⁴ Ibid., 297.

⁵ Ibid., 299.

⁶ Ibid., 299-300.

⁷ Ibid., 298.

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금융 시장과 주식시장, 선물시장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들이 시초를 다투면서 초고속으로 유동하고 있다.⁸ 이것은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요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결국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변동은 결국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가속화되는 지구화에 따른 지역적 통합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국가들의 문화 변동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대중 전달 매체산업이 문화의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생산과 유통형태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와 다양한 문화들의 혼재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했다. 대중매체가 인간관계를 상징과 대용화폐에 의한 관계로 전환하였을 때, 그것은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관심을 공유하기만 한다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정한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의 상당 지역이 하나의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속화되는 세계화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특정 국가와 그에 속한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다문화현상을 통하여 상대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단일민족, 단일국가, 단일사회라는 틀에 의하여 간혀 있던 것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해방적이며 독특한 문화의 발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은 사회·경제적 분열이 점

차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평등의 이상과 실제의 불평등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개인이나 전통사회는 자신만의 문화와 정체성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사회의 부상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민족주의와의 건전한 만남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요청하게 된다.

3.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의 부상

다문화시대를 맞아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을 무시할 경우 과격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 예컨대 유럽에서의 ‘민족부흥’ 운동은 다문화시대를 배경으로 부상한 것으로 정체성과 문화 확립이 운동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유럽계 백인들의 ‘민족부흥’은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⁹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 형태의 부적절한 대응은 사회적, 정치적 통합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주의가 주장된다.¹⁰

1) 다문화사회의 부상과 대안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¹¹에서는 민족·문화적 갈등 뒤에 경제적 문제와 이유가 숨어 있다. 문화적 갈등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라기보

⁸ Ibid., 298.

⁹ 마르코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 Marc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옮김, (한울, 2008), 29.

¹⁰ Ibid., 41.

¹¹ Ibid., 65., 킴리카(Will Kymlicka)는 두 가지 유형의 다문화사회-1) ‘다민족’(multinational) 사회와 2) ‘복합인종’(polyethnic) 사회-로 구별했다.

다는 결과이다. 문명들 사이의 경계는 헌팅턴(Huntington)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더 나아가 헌팅턴은 상이한 문명권 속에 속하는 국가들의 연합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문명들 사이의 관계가 증대된다고 해서 갈등이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다.¹²

유럽의 경우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접근방식이 시도되었다. 그 하나는 하나의 단일문화적 총체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나 지역들은 공동체적 연대를 통하여 열악한 영역으로 부가 이동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의 동력이 저하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³ 여러 민족문화로 이루어진 국가는 문화적 통합의 부재로 인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사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러한 국가들이 여러 가지 실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단일문화체계를 추구하는 근본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단일민족국가의 쇠락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만으로 다민족국가의 몰락이 설명될 수 없으며,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문화적, 민족적 차이에 접목될 때 정치적 갈등과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¹⁴

역사상 이민자 통합의 문제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동화주의 대 다원주의,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 평등주의 대 차별주의 등의 이원적 대립으로 전개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대조적 대응모색은 프랑스식의 ‘동화주의’ 모델과 영미 계통의 ‘다원주의’ 모델로 나뉘어진다. 프랑스에서는 자코뱅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문화적, 민족적, 종

교적 다양성의 문제는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개인은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서 동등하다. 개별적 특수성이나 공동체적 정체성은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 되며 공적인 무대에서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만이 우선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미 계통의 다원주의적 전통에서는 고유의 문화가 사회 전체에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노력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우세하다. 각각의 공동체는 고유의 특수한 권리의 존중과, 그 구성원들을 위해 가능한 많은 권리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반영되는 결과를 낳는다.¹⁵

동화주의적 사회는 대부분 자기 영토 내에서 탄생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jus soli) 정책을 시행한다.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자들은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역사적으로 학교와 군대는 동화를 위한 두 가지 제도였다.¹⁶

다원주의적 접근은 재정 지원을 통해 소수집단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적과 민권에 대한 정책은 속지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이미 특정한 문화에 소속됨으로써 시작된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수립에 관심을 가진다.¹⁷

결론적으로 동화주의적 모델과 다원주의적 모델의 효력을 주장하며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도처에서 아직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와 인종차별, 주거지의 격리가 심화

¹² Ibid., 51.

¹³ Ibid., 53, 55.

¹⁴ Ibid., 57, 59.

¹⁵ Ibid., 68-69.

¹⁶ Ibid., 72-73.

¹⁷ Ibid., 75.

되는 ‘게토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동포적 경향이 그 반대편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를 동화주의와 다원주의의 이분법적 모델로 구분짓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주의적 주장과 개별주의적 주장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2)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동화주의와 다원주의 사이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정책과 국민들의 합의정서, 즉 국민정서는 어느 한편으로의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문화사회의 부상과 함께 아직 형성 중에 있는 국민정서와 국가정책이 하나님 나라의 그것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 대안에 대한 모색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오늘의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대안이 엇갈릴 수 있는 주요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프티 로베르(Petit Robert)는 다문화주의를 간단하게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¹⁹ 문화영역에서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라는 영역이 인종, 민족, 성의 문제로 억압받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예술적 생산을 강조하면서 문학, 영화, 회화 등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주도하였다.²⁰ 정치학에서의 다문화주의란 우선 사

회 안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공적인 시도를 지칭한다.²¹

현실 정치상황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또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채택한다. 이 모든 정책은 직접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하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민족적, 문화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²² 교육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 구조화된 공공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벨기에에서 가톨릭 학교는 공공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슬람 학교라는 개념은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욕의 엘리스 섬 이민 박물관의 창립 역시 국가의 다문화적 역사에 대해 대중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²³ 특별히 미국에서는 ‘차별수정계획’(affirmative action) - 긍정적 행동이란 의미로, 미국 내 흑인, 소수민족, 여성의 고용이나 고등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별수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²⁴ 민족, 인종에 따라 할당 인원을 강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목표는 사회의 모든 층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실을 전제하면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한, 혹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집단들의 대표성을 보완함에 있다.²⁵

이러한 다문화성을 포괄하기 위한 공적 개입의 영역과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적인 재원 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문화주의는 재분배의 문제가 되며, 또한 사회정의의 문제가 된다. 어떤 경우에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소수집단

¹⁸ Ibid., 84-85.

¹⁹ Ibid., 88.

²⁰ Ibid., 92-93.

²¹ Ibid., 93.

²² Ibid., 95-96.

²³ Ibid., 96-97.

²⁴ Ibid., 98.

²⁵ Ibid., 99.

들이 단결하여 자신들만의 특수한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가 특별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독립정부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려는 무리한 시도마저 감행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특정한 민족과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집단은 결국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며, 자기들의 문화나 정체성이 무시되는 것을 거부한다.²⁶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강경’ (hard) 다문화주의는 ‘온건’ 다문화주의 내에 존재하는 피상적인 다원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²⁷

3)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과제

‘다문화주의자’ 들은 내적으로 강력한 동질성을 갖는 사회집단들이 보유하는 일관된 문화, 서로 간에 확연히 구별되는 문화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누어진 사회체계를 전제로 한다. 소수민족, 민족집단, 문화공동체 등으로 지칭되는 이 집단들은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와 거리가 클수록 더 불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동화주의자들에게 통용되던 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본질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접근은 인류학의 발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그 권위가 실추되었다. 문화는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적 모태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정치적 구성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²⁸

²⁶ Ibid., 100-103.

²⁷ Ibid., 106.

²⁸ Ibid., 113.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중 문화에 대해 본질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개념을 채택한 이들은 문화적 상대주의로 빠져들게 되었다.²⁹ 또한 다문화주의자들 중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은폐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를 읽는 유일한 도구를 문화라고 주장함으로써 문화, 경제, 사회의 영역 간 상호작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모든 사회문제를 ‘문화화’ 하는 것은 국가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려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을 은폐하는 것이 아닌지도 심각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³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의 4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에 밀집돼 있는 데다 다문화가정은 이혼 비율이 일반 가정의 7~8배에 달한다고 한다. 언어와 경제적 문제, 가정불화의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책임적 대안은 다문화사회를 통합적으로 포괄할 만한 공공정책과 민족, 인종, 문화, 종교에 관련된 차별의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법률을 제정하고 적용함이 요청된다. 그러나 법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들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사회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합의를 토대로 하는 문화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³¹

4.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재등장

가속화되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다문화사회가 현실이 되고,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가 부상하는 오늘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민족주의는 세계 곳곳

²⁹ Ibid., 115.

³⁰ Ibid., 123.

³¹ Ibid., 147-148.

에서 매우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며 또한 기능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는 현실 정치와 사회 갈등에서 주요한 대립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나아가 평화에 위협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정체성 유지의 위협이며, 결국에는 사회구조 유지에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다문화적 상황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도되어야 한다. 예컨대 나치 독일의 폭압적이고 파괴적 민족주의, 구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지역에서 부상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특정 종교와 결합된 호전적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부정적 경계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역사는 미국 독립을 가능케 하였던 민족주의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의 전후 독립을 가능케 하였던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민족의 문화적, 정치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유엔협약(the 1966 Covenant of the United Nations)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난해한 과제이다. 특정한 민족 범주의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안에 자리한 사람은 더욱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경우에도 민족주의와의 조우에서는 나름대로의 당파성을 온전히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의 분쟁, 북아일랜드에서의 분쟁, 옛 유고의 공산주의 정권 몰락 이후의 처절한 분쟁과 9·11 이후에 대두되는 문명의 충돌론 등을 통하여 우리는 종교와 민족주의적 갈등이 혼재되었을 경우의 비극적 사태를 목격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민족을 초월한 보편성(Catholicity)이 뚜렷하였지만, 특별히 1848년의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와 베스트팔렌(Westphalia) 조약 이후로 점차로 교회도 민족적, 정치적 경

계에 의하여 나누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도 그들의 신앙적 확신에 따라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³²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역시 민족주의는 매우 다양한 역할과 평가의 대상이다. 일본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부상하는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적 부상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 민족이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통합적 가치와 목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기독교의 한국사회에서의 역할과 평가에도 반영된다. 어떤 이들은 한국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민족주의적 종교가 되어 초월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또 다른 이들은 한국 기독교가 민족주의적이지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민족주의란 무엇이며, 교회는 민족주의를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1) 민족주의에 대한 신학적 반성

민족주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예시하듯이, 성경 자체 안에서도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확실적인 증언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매우 상반되는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대조적인 증언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인류의 사명에 대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창 1장; 뱀전 2:9-10).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전세계에 흩어져 충만할 것을 원하셨

³² Gregory Baum, *Nationalism, Religion and Ethics*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4-5.

다(창 9:9;10). 그러나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였다(창 11장).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은 각 특성에 따라 흩어져 살 것을 명령받았고, 그것은 교만한 죄성을 억제하려는 방법으로 묘사되었다(창 11:1-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기보다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곧 민족을 인간의 역사적 책임의 맥락에서 묘사한다. 민족과 문화는 종말에도 나뉠대로의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묘사된다(사 60장, 계 21-22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결과를 축복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³³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의 민족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잘 나타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 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행 17:26-27).

2) 민족주의와 보편주의의 관계성 모색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민족주의와 보편주의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이 개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나 문화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류 공동체에 통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인류의 다수 민족 상태를 본래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외양에 있어서 국제적

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부버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옹호하였고, 그의 생애 내내 이러한 입장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⁴

민족주의적 요소를 간과한 획일적 보편주의는 일종의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됨을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상 획일적 보편주의는 전체 인류에게 동일한 규범을 강요하는 교만한 특수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틸리히(Tillich)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막시즘은 문화적 뿌리와 민족적 정체성을 반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인류개념을 제시한다고 하며, 이것은 곧 인류 진보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버와 틸리히 등의 신학자들은 민족주의와 동반되는 편협성과 교만함은 결코 사해동포주의나 세계화와 세계시민의식 등의 획일적 보편주의로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였다.³⁵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족주의의 한계 극복은 인류의 다(多)-민족(pluri-national)적 상황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된 다. 부버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 바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수의 민족들로 창조하셨다.”³⁶

3.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의 조화 모색 : 기독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기독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자아 존중의 확보와 함께 ‘타자’ (the others)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된다. 적자생존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적 사고가 인류 역사를 주도한다면 타자와의 평화로운 공존은 불가능하다. 특별히 약자를 위한 연대가 터

³³ Paul M. Marshall, “Nationalism”,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ed. Banks & Stevens (IVP, 1997), 681.

³⁴ Ibid., 111.

³⁵ Ibid., 113.

³⁶ Ibid., 114.

전을 상실하게 된다. 나와는 다른 타인들과의 정의로운 관계와 궁극적인 화해는 인류 공동체의 연대감과 공동체적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건전한 신학은 화해자로서의 하나님이 민족들을 정의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인도한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타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읽어줄 수 있는 공간의 마련 여부가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민족주의는 그것이 사회정의와 부의 공평한 배분을 지향할 때 윤리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정의와 자유가 동반되지 않는 민족주의는 또 다른 억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가 19세기 들어서는 종교가 차지하였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한스 콘(Hans Kohn)의 주장은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종교와 민족주의의 유기적 관계성에 주목하는 에릭 홉스바움(Eric Hobsbawm)은 1990년대 들어서 민족주의는 소수 이데올로기보다는 ‘대중적 힘’(mass force)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더욱 종교와 민족주의의 상관성이 심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³⁷

그러므로 민족주의가 정의롭게 기능할 수 있는 종교적, 신학적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에서 퀘벡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자끄 그랑메종(Jacques Grand' Maison)은 정당화될 수 있는 민족주의 형성을 위한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이 민족주의가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갱신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가?
- (2) 이 민족주의가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되었는가 아니면 상당기간 동안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는 소외를 유발해 왔는가?

³⁷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67-68.

- (3) 이것이 인간의 평등과 부의 재분배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 (4) 이것이 건전한 경제발전과 인간의 삶을 안정적 상태로 도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 (5) 이 민족주의는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정체성과 자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 (6) 이 민족주의가 나라가 다른 문화들이나 전체 인류와 더욱 개선된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 (7) 이것이 소수 민족들에게 전체로서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
- (8) 이것이 민주주의와 그 대표성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민족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집단들의 정당한 자율성을 인정하는가?
- (9) 이것이 이민자들에게도 평등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가?
- (10) 이것이 인간의 소명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와 맥락을 조성하면서 권위 있는 진정한 통합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³⁸

우리는 이러한 평가적 질문들을 참조하여 민족주의의 건설적 기능과 보편성과의 조화를 담보하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 민족주의는 더욱 정의롭고 더욱 개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³⁹
- (2) 민족주의는 소수 민족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추구되어야 한다.
- (3)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들과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

³⁸ Gregory Baum, op.cit., 107.

(4) 민족주의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학적' 주장을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다문화시대 교회의 역할: 기독교 문화 형성의 과제

오늘 우리는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대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회는 다문화사회를 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세계화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우상적이지 않은 자기 존중' (non-idolatrous self-esteem)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라는 화해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아니 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확립이다. 사실 한국과 기독교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다. 즉 한국이라는 개별성(particularity)을 통하여 기독교라는 보편적인 진리(the universal truth)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 한국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개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우리 문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것은 우리 문화 자체가 품고 있는 다원성이다.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21세기적 정황은 이러한 다원성을 더욱 촉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시대의 기독교적 민족주의 문화란 특정한 민족과 문화를 절대화하는 우상숭배적 경향을 경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민족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정신에 기초하여 각 문화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화를 말한다. 기독교 문화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양한 민족과 문화들 사이의 '더욱 건설적인 통합' (more constructive hybridization)까지도 추구하는 모험적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39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진정으로 자신의 조국과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조국이 사회정의를 포용하여야 한다는 큰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0년대 뉴욕에서 생활하던 틸리히를, 나치를 신봉하던 저명한 신학자 히르쉬(Hirsch)가 조국의 배신자로 비난하였을 때, 틸리히는 히르쉬보다 자신이 더욱 조국 독일에 충성스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답하였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열망하는 이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A Nationality with walked in Korean History

■ 김수진 Kim, Soo Jin

- 장로회신학대학교(Th.B.)
- 일본 도시사대학 대학원(Th.M.)
- 미국 풀러신학교(D. Min.)/미국 코헨신학교(Th.D.)
- 한영신학대학교 교수
- 한국목양문인회 회장 역임
- 개신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한국교회역사연구원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독립협회와 한국교회

1)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애국자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사람을 길러내는 것보다 값진 것은 없는데 바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낸 것이다. 먼저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2일 서재필(1864-1951년)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서재필의 호는 ‘송재’이며, 영어명은 제이슨(P. Jason)이다. 서재필은 전남 보성에서 출생하여 7세 때 서울에 올라와 외숙인 판서 김성근 밑에서 한학을 배웠고, 1879년(고종 16년) 전장에

장원하였다. 이 무렵부터 김옥균, 서광범 등 개화 인사들과 교분을 갖게 되었다. 1883년 일본에 건너가 도야마육군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후 국왕에게 사관학교의 설립을 진언하여 사관장이 되었다.

그후 서재필은 1884년 12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켜 병조참판이 되었으나 정변의 실패로 1885년 일본에서 루미스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1896년 귀국 후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서재필이 중심이 되고 순 한글신문의 효시이다. 제4면은 영문으로 하여 조선의 사정을 외국에 알리는 데 힘을 썼다.

이때 서재필을 중심으로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남궁억 등 개혁파 세력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칭하였으며 독립협회의 창설과 함께 1897년 11월에 국민의 성금으로 종래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 단체는 독립문 건립을 시작으로 민족의 자립을 강조하며 열강의 이권침탈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전제군주 국가 체제에서 벗어나 입헌군주국가 체제로 변혁하기 위한,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897년 2월에는 러시아 영사관에 머물러 있던 고종에게 환궁할 것을 호소하여 이를 결행하게 하였으며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도록 청원하며, 외국인 고문과 교관 초빙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또한 지하자원 개발권 및 철도부설권을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도 외국 자본주의 밑에 국가경제를 예속시키는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주최로 열린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열려 러시아인 고문과 군부 교련 사관의 해고를 요구하였고, 이승만, 홍정하 등의 청년연사가 열렬한 연설을 하여 대중의 여론을 일으켰다. 만민공동의회는 양반급 인사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한 사

람들의 모임이었다. 1898년 10월 28일 종로에서 모였던 공동의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준이 열변을 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대한의 천한 사람이고 무지 몰지각합니다. 그러나 충군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하고 평안한 길이므로 관민이 합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장대로 반친족 힘이 부족하지만 많은 장대로 합한즉 그 힘이 심히 강합니다. 원하기는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만만세를 누리게 합시다.¹

그러나 이 대회는 정부의 매국적 행위를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주장과 개혁사상을 보수세력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다가 이 조직도 1899년 초에 해산되었고, 만민공동회 회원들은 잡혀 들어가 종신형을 받고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은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로 이어졌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도미한 후에 독립협회의 해산으로 폐간되고 말았다.²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말하라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들라 하면 안창호, 김구, 이승만, 김규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가 초기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선교사들이 한 일 중 가장 손꼽을 만한 귀한 일은 한국의 위대한 인재들, 애국자들뿐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수없이 길러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¹ 세계개독교교회연맹,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증언》(세계개독교교회연맹, 1989) 27.

² 조향근, 《세계대백과사전 제 6권》, 28.

2) 신민회를 통한 애국운동

신민회가 비밀리에 조직된 것은 1907년 4월 20일경이었다. 신민회 창립을 주도한 안창호가 미국에서 귀국한 지 2개월 만에 결성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항일 비밀결사단체가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상동청년학원과 같은 기존의 항일민족단체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신민회 창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물을 보면 상동청년학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기탁, 이갑, 유동렬, 이동휘, 이동녕, 전덕기 그리고 안창호 등 발기인 7인은 직·간접적으로 상동청년학원과 연관을 맺고 있다. 상동청년학원은 한국 기독교 최초의 감리교 기독교청년회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배출되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신민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목적은 상실되어가고 있는 ‘국권 회복’을 위한 일이었다.

이들은 비밀결사단체로서 내적으로는 중세적 봉건 왕조를 청산하고 근대적인 공화정을 설립하며 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후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³

이런 신민회의 조직과 회원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참여한 시기는 독립협회가 시작되던 시기부터로 신민회는 그 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중심된 운동이었다. 1907년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고 정부의 차석에는 일본인들이 앉아서 군경과 나라의 법까지 낱낱이 인계하고 광산과 산림과 토지를 빼앗기고 있을 때 조직된 것이다.

³ 윤경로,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서울: 역민사, 1997), 32.

슬프다 동포여 아는가 모르는가. 꿈을 깨었는가. 수 평의 초가집도 나의 것이 아니며, 수 궤의 산소도 나의 땅이 아니며, 문전의 뽕나무와 석류도 나의 초목이 아니며, 동구밖의 시냇물도 나의 물이 아니다. 내 몸이 죽어서 문힐 땅이 없으며 나의 자손이 자라서 거주할 방이 없으니. 우리 이천 만 동포가 기왕에 실기함과 장래의 통국함을 불금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혈관의 피가 약동하는도다.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 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 자유함으로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가 원하는 바이며 신 정신을 깨우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⁴

신민회 사건은 일제의 한국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이요 공격이었으며, 일제는 거짓으로 105인 사건을 만들어 기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선교사들을 연루시켜 추방하려 하였다.

105인 기소자 123명 중 장로교인이 81명, 감리교인 6명, 조합교인 2명, 천주교인 2명, 기타 2명으로 총 93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신민회의 지도급 인사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⁵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참다운 애국운동의 근원은 한국 개신교였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떤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수하며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이 계속 태어나도록 신앙적 애국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신앙적인 애국자와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간 선교사들의 업적을 귀감 삼아 우리나라 안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 나간 선교사들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

⁴ 세계개척교회연맹, op. cit., 40-42.

⁵ 윤경로, op. cit., 35.

국 애국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힘써야 할 것이다.

3) 성경 번역과 한글 보급 운동

(1) 로스와 매킨타이어 번역 성경

성경의 한글 번역과 한글 보급으로 문맹을 퇴치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으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Rev. J. Ross)와 존 매킨타이어(Rev. J. Macintyre) 목사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처남 매부지간으로 토마스(Thomas) 목사의 순교 소식을 스코틀랜드에서 듣고 크게 자각을 받아 특별히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1872년, 이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만주 우장에 선교본부를 두고 우리나라를 향하여 기도드리며 선교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들이 고려문까지 가서 한국 사람들을 찾던 중 때마침 새로운 학문에 호기심을 가진 이용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 네 사람의 한국인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성경 번역에 협조자가 되었다.

또한 서상륜이 만주 우장에 갔다가 장티푸스를 앓게 되어 이 선교사들의 간호로 완쾌된 후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 번역에 협조하고 있는 네 사람의 젊은 학자들과 함께 1881년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의 협력을 받아 1882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주선으로 심양에서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인쇄가 되어 나왔다. 이것이 최초의 한글 성경 출판이다. 성경을 읽히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공부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독교신자는 누구나 글을 알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 기독교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후 신자들을 깨우쳐 믿음을 갖게 하고 동시에 문맹을 깨우치는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나라를 문화국가로, 기독교인

들을 문화인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2) 언더우드(Underwood)를 중심으로 한 성경번역 위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잠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수정을 만나서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 그는 로스역 성경이나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성서를 새롭게 번역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로스역의 지나친 사투리와 그 난해성을 보고 성서 번역의 체계적인 착수를 위하여 1887년 2월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번역에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과 순수한 한글(Pure Korean)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때 성서 번역은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란 칭호를 깊이 연구하게 하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게 한 명석한 문학 연구도 추진하였다.⁶

1887년에 성서번역위원회가 번역을 시작하여 1900년에 신약을 완간했으며 1910년에야 구약이 완간되었다. 이렇게 해서 밤낮 없는 수고로 13년 만에 성서의 개역 수정판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⁷

한글학자이며 새문안교회 집사로 봉직한 최현배 박사도 “어리석은 백성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거룩한 뜻이 여기서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⁸ 또한 한글 학자로 “한글의 중

흥을 이룬 주시경은 배재학당에서 공부하다가 우리말, 한글을 배워 알고 한글 연구로 일평생을 보냈던 것이다.”⁹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간소하고 재치 있는 글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한글을 남달리 사랑하고 완전하게 쓰고 있는 실정이다. 부녀자들의 허리띠 틈에 일상어로 된 신약성서 책이 꽂혀 있고 사랑방 책장 위에도 언문의 성경이 올려져 있다.¹⁰

주시경은 배재학당에 입학하면서 신학문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접하였다. 그는 배재학당 재학 5년 동안 한글 연구의 기초를 닦으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배재학당을 졸업하면서 세례를 받고 정식 기독교인이 되었다.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에는 선교사 어학 선생, 간호원 양성소 교사, 정동교회 청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계몽운동, 민중 선교에 깊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상동교회 안에 있던 상동청년학원 교사로 부임하면서 전덕기를 비롯한 민족 운동가들과 폭넓은 교제를 나누었고, 민족운동의 연장선에서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였다.

주시경의 신앙과 사상은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기초로 만민평등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실천윤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는 민족의 개화와 발전도 모든 지혜와 권력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서 구했으며, 한글을 통해 그 당시 민족의 역사적 과제였던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주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일제시대의 시련과 형극 속에서도 국학 연구에 있어서 백낙준 박사의 공로는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⁶ 예장역사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권, 140.

⁷ Ibid., 200-201.

⁸ Ibid., 201.

⁹ Ibid., 201.

¹⁰ Ibid., 202.

그는 1927년 한국 개신교 선교역사를 발행해 냈지만 그것은 개화기를 망라한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한 체계적인 서술이었다. 그는 일제하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희전문학교에서 조선 어학을 선택과목으로 교수하게 하고 조선사를 동양사 속에서 겹쳐 강의하게 하고, 조선어학을 한문 속에서 함께 학습하도록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런 모험의 결실이 정인보의 조선문학원류 초본이 되었고, 또한 최현배 박사의 품사론이었다. 실로 조선학 연구가 연희전문학교에서 시작된 것은 이러한 배경과 지도자들이 있었던 귀한 역사의 흔적이다. 이 밖에 평양 숭실전문학교의 양주동 박사의 조선 고가 연구(1942년), 그리고 장로교 김윤경의 조선 문자급 어학사(1938년), 장로교 이윤재 선생의 조선어 표준말 모음 등이 우리 교인들의 국학 업적으로 꼽힌다.¹¹

초기 선교사들이 당시 천하게 취급받으며 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던 한글을 성경 번역의 언어로 선택한 발상부터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이 성경 번역을 한글로 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문서를 한글화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한글의 성경 번역으로 온 국민들에게 한글을 보급함은 물론 우리나라 한글 학자들을 길러내어 발전시킨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오늘 우리 교회들의 사회에 대한 무력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반성케 한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무관심에서 이런 무기력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적 열정의 약화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 양면적 반성을 하게 된다. 대부흥운동에서 보듯,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

시켜나간 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지켜나갔듯이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할 것이다.

2. 초기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적 활동

1) 헌신적 봉사

한국선교에 있어서 의료선교는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국민의 육적인 치료뿐 아니라 놀랄 만한 영적 치료의 열매를 맺었다. 알렌(Allen) 의사에 이어 수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생명을 바쳐가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알렌 선교사가 병자들을 치료하게 되니 한국인들은 새로운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꼈다. 알렌은 생명이 위독했던 민영익을 치료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후에 왕실 의사가 되고, 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민영익의 도움으로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개원하고 이곳에서 언더우드, 헤론(Heron), 그리고 감리교 의사였던 스크랜턴(Scranton)이 의료선교에 임하였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 선교는 의료선교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혜원은 1900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Cleveland)의 실업가 세브란스(L. H. Severance)가 거금 1만 5천 달러를 회사함으로 남대문 밖 지금의 서울역 앞에 대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현대식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¹²

그후 광혜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불렸다. 계속해서 곳곳에 신식 병원이 세워졌는데 주로 선교사들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알렌과 같이 일하던

¹¹ Ibid., 489-490.

¹² The Annual Report,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for 1886, 268.

스크랜턴이 정동에 ‘시의원’을 설립하여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여인들을 위해 일하였고, 1886년 북장로교 엘러스(A. Ellers)는 왕후의 시의가 되었고 고관부녀들의 의사가 되었지만 그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녀자들을 치료하였다.

특히 1887년 10월에는 하워드(M. Haward)가 시병원에서 여자환자들을 돌보다가 몸이 약하여져 귀국하고 1885년 이 땅에 와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던 장로교의 헤론 의사가 1890년 7월 세상을 떠나니 그는 한국을 위해 일하다가 생명을 바친 최초의 의사였다.¹³

초기 선교사를 살펴보면 의사들이 많이 과로로 숨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봉사하다가 이런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순교적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숨진 의사들이 많았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이 땅을 찾아와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전국적으로 놀라운 의료활동을 하였다.

평양은 1892년 홀(Dr. William James Hall) 의사 부부가 와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홀 의사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폴웰(Dr. E. D. Follwell)이 그 뒤를 이어 봉사하였고, 그후 1898년 홀 의사의 부인 로제타 홀의 사가 와서 남편을 기억하여 기흥 병원을 세우고 사역을 하였다. 대구는 1899년 존슨(Dr. Johnson) 박사가 요양원을 세우고 일하다가 건강 관계로 1903년 귀국한 후 널(Dr. M. M. Null) 의사가 와서 봉사하였으며, 부산은 1891년 브라운(Dr. Brown Hugh) 의사 부부가 요양원을 세우고 일하다가 병

로 세상을 떠났다. 그후 1893년에 어빈(C. H. Irvin) 박사 부부가 와서 일하였다. 원산은 1892년 맥길(Dr. W. B. McGill)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01년 충남 공주로 옮김으로 하아디가 맡아 일하다가 그의 조력자였던 로스(Dr. J. B. Ross)가 맡아서 충성하였다.¹⁴

전주예수병원은 1898년 마티 잉골드 선교사(Dr. Mattie B. Ingold)에 의해 처음 진료를 시작한 이래 전주 시민들의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써 왔다. 1900년대 의료시설이 전무했던 이 지역에서 전주예수병원은 한 해에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전주 시민의 신임을 얻었고,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동한 전주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병원을 예수병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처럼 당시 의료선교는 선교의 효과도 컸지만 적은 수의 의사들이 맡겨진 과중한 일을 해야 하는 격무의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보면서 쉴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활동하다가 과역으로 인한 건강의 손실로 죽는 일뿐 아니라 견디지 못하여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선교지로 오는 형편이었다. 광주 제중원의 경우 “놀란(Nolan)의 사면 이후 중단되었지만 1907년 윌슨(R. M. Willson)에 의해 재개되었다. 병원이 열리자 환자들이 쇠도하여 몰려왔다. 1910년 병원 시설이 불비하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의 그래함 장로 부처는 1911년 세상을 떠난 자기 딸을 기념하는 뜻으로 당시 일만 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보내어 병원 건축 기금으로 사용하게 하여, 1912년 그래함 기념병원(Ella Lavine Graham Memorial Hospital)을 세웠다. 이 병원은 3층이나 되는 벽돌 건물로 50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된 근대적 병원이었다.”¹⁵

¹³ 성갑식 편, 《그리스도교대사전》(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1161.

¹⁴ Ibid., 1161-1162.

2) 초기 의료선교사들의 순교적 활동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병원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 조선 의사들의 활동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선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1877-1910년)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박에스더는 볼티모어에서 양의학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진맥조차 자유롭게 받지 못하던 100여 년 전 여성환자들을 위해 살았으며, 많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게 되었던 봉사정신이 투철한 의사였다. 박에스더의 본명은 김점동으로 그녀는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의 집안일을 돕던 광산 김씨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서양 선교사 집에서 일을 하는 만큼 김점동은 비교적 일찍이 서양문화에 눈을 뜰 수 있었다. 김점동은 10세에 정동에 있던 이화학당에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하였으며 총명하고 영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어학에 뛰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 이름을 에스더로 바꿨다. 에스더는 당시 이화학당 교장이던 스크랜턴의 소개로 의료 선교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온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의 의료활동 통역사로 활동하던 중, 셔우드가 언청이 수술을 흉터 없이 완벽히 해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는 자신도 의술을 배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하였다.

에스더 김점동은 닥터 셔우드 홀 선교사의 의료활동을 돕던 박여선을 소개받고 나이 17세에 결혼하였다. 이때 김에스더는 서양 풍습에 따라 남편 성으로 이름을 박에스더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미망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로제타 셔우드 홀을 따라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박에스더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얼마 지나

지 않아 볼티모어의 여자 의과대학에 최연소로 입학하였고 졸업 후 의사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에스더는 동대문 인근에 특별히 마련한 여성전용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여 부임 첫해 10개월간 3천여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휴일도 휴가도 없는 나날이었다.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성환자가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찾아갔다.

그리고 이듬해 셔우드 홀이 세운 평양의 기흥기념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박에스더는 병원에서 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평안도와 황해도를 두루 다니며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벽지의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그녀는 엄동설한에도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타고 환자를 찾아나섰다. 박에스더가 펼친 의료활동은 미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병이 들면 무당을 찾아가 푸닥거리를 할지언정 의사를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박에스더는 말 못할 대접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해나가던 박에스더이지만 미처 자신의 몸을 돌보지는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는데 당시 의학기술로 손을 쓸 수 없는 병이었다. 결국 1910년 34세의 박에스더는 자신이 돌보아야 할 많은 여성환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개화 초기 여성으로 태어나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한 미국 유학을 감행한 후 의사가 된 박에스더, 자신의 열정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소진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삶은 시대를 넘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3) 불치의 한센환자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

한센환자들의 아픔은 한 인간으로서 더없는 절망과 큰 아픔이었다. 집안 식구와 친척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쫓겨나서 소외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치료를 위

¹⁵ G. T. Brown. Mission to Korea (USA: PCUSA, 1962), 71.

하여 사람을 살육까지 한다는 거짓 소문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진실로 대해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다.

1933년의 상황을 보면 부산(1911년), 대구(1913년), 여수(1911년)의 나병 수용 환자는 전체 추산 2만 환자 중에서 재원 부족 때문에 1,723명에 불과하였다.¹⁶

이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 국립 소록도 요양병원에는 1,047명이 수용되고 있었음을 살펴보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한센환자들을 위한 대부분의 기금이 ‘인도 아시아 나병선교회’에서 보급되었고 장로교 역시 한센환자를 위한 헌금은 극히 미약하였다.¹⁷

그러나 한센환자들을 위한 병원 설립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은 광주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위대한 사랑의 봉사 사건은 오웬(C. C. Owen, 오웬) 의사¹⁸가 중병에 걸려 광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목포의 포사이드(Dr. W. Forsythe, 보의사) 의사가 윌슨(Wilson) 의사의 보고를 받고 오웬 의사 치료차 광주로 가던 나주지방 노상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말을 타고 광주 쪽으로 약 20킬로미터 되는 지점에 왔을 때 한 비참한 한센환자(여

자)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딱한 정경을 보던 포사이드 의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받쳐올라 돕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하여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가 타고 있던 말에 그녀를 태워 광주로 데리고 왔다. 1909년 4월 5일 밤 포사이드 의사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오웬 의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포사이드 의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접근하기조차 꺼려하는 그녀를 부축하여 길 아래로 내려올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오웬 의사의 부인은 남편이 순회여행 때 쓰던 도구 일체를 주며 보살폈고, 포사이드 의사도 정성껏 치료해 주었으나 그녀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선교사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나병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헌금을 모아 우선 5-6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집 삼간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윌슨은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나병협회에 편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행히도 나병협회에서 2천 달러를 보내오자 1911년 나병환자 수용소 건립 허가를 받아 1912년 병원을 개원하여 45명을 수용하였다.¹⁹

포사이드 의사는 1904년 우리나라에 와서 “1905년 3월 전주에서 60리나 떨어진 시골에 부자 양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생명이 위독하여 치료해 주러 가서 치료하고 너무 늦어 그 집에서 저녁을 지내는 동안 강도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포사이드 의사를 칼로 마구 찔러 목과 귀에 심한 상처를 입고 죽은 줄 알고 버린 채 달아났다. 이 소식을 들은 선교부가 전주로 이송하여 목숨은 겨우 건졌으나 그의 상처는 이곳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미

¹⁶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 1932-1933, 98.

¹⁷ H. A. Rhodes,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in U.S.A. 1884-1934, 314.

¹⁸ 1898년 가을에 배유지(Eugene Bell) 목사 가족과 오웬 의사가 목포에 옴으로 목포 지역 선교가 시작되었다.

¹⁹ G. T. Brown, 71-62.

국으로 귀국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한편 포사이드 의사의 치료를 받아 완쾌된 부자 양반이 전주 이씨 문중의 저명한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이 회복되자 가마를 타고 교회에 나감으로 양반과 지식층이 교회 출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 되어 전주교회는 성장을 거듭하였다. 1909년에는 52명이 세례를 받고, 7명이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56명이 원입교인으로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²⁰

포사이드 의사는 1909년 다시 목포 제중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광주 봉선리에 한센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다. 포사이드 선교사의 사랑에 감동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 손양원(1902-1950년) 목사의 한센환자들을 향한 위대한 생애는 우리에게 또한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경남 함안군 칠원에서 손종일 장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13년 호주 장로교의 맥크레이(F. J. I. Macrae, 맵호은)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918년 2월 서울로 상경하여 중동중학교에 다니며 안국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1924년 3월 일본에 건너가 나카다(中田重治) 목사로부터 큰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것을 각오하여 매일 밤 열심히 기도하던 중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조국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귀국하여 경남성경학원에 입학했다. 1935년 4월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에 열중하였는데 신학교에서도 뜨거운 기도생활과 성경 읽기로 유명했다.

졸업한 다음 부산지방 시찰회 강도사(준목에 해당)로 일하며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설교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는데, 당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경남노회는 그에게 안수조차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전도사 자격까지도 박탈하였다. 그후 1939년 7월 15일 전남 여천군 애양원 한센환자들의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버림받은 나환자들의 몸을 씻기

고 상처 난 손과 발을 싸매주었으며, 때로는 입으로 더러운 피고름을 빨아주기도 했다. 거둬되는 신사참배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던 그는 마침내 1940년 9월 25일 연행되어 1941년 7월 광주형무소를 거쳐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곧 청주형무소 독방에 수감되어 고생하면서도 주님을 뜨거운 일념으로 섬기며 오로지 감사 찬만하여 수감된 사람들과 간수들에게까지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해방이 되어 1945년 8월 17일 6년 만에 출옥하자 애양원교회에서 다시 한센환자 목회에 헌신의 힘을 쏟던 중 1946년 3월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6·25 전쟁 때 여수 시 미평 돌짜밭에서 순교를 당하였다.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 8:2-3).

예수의 제자 세리 마태는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한센병은 지금 많은 약들이 발명되어 초기에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큼 손을 내밀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포사이드 의사가 나병원을 세울 때의 상황은 치료 불가능한 매우 위험한 병이었으며, 손양원 목사가 섬길 때에도 치료 불가능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극진한 대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4) 결핵 치료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

결핵은 제2차 세계대전 치료약인 마이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치명적

²⁰ Ibid., 64-66.

인 병이었다. 결핵은 그 시대에 치명적인 질병이었지만 우리나라에 결핵 병원이 설립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결핵을 위한 병원이 1920년 3월 세브란스 병원의 스타이즈(F.M. Stites)가 세운 것이 최초의 것이요”²¹ 1925년 평양의 진료소 그리고 1928년 시설이 월등했던 결핵요양원이 해 주에 세워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함께 사회의 공업화, 가정의 어려움, 중노동과 영양부족 등 각종 원인으로 결핵환자들이 날로 늘어났다. “2,500만 인구 중 5할이 결핵 감염자요 100만 명 가량이 결핵환자라는 엄청난 통계였다.”²²

“이러한 결핵 박멸 운동을 위해 구세위원의 홀(S. Hall) 부부가 덴마크의 결핵 박멸 방법을 따라 ‘크리스마스-실’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1932년 부터였다.”²³

우리나라의 결핵은 대부분 농촌생활의 중노동에 의한 과로와 영양실 조에 의한 것이었다. 결핵이 발병하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못하므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병균이 옮겨 전염되어 온 가정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당시 치료방법으로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요양하며 오랜 기간 동안 요양을 거쳐 치유되기도 하였지만 그럴 만한 환경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결핵뿐 아니라 불치의 병으로 알았던 많은 질병으로부터 치료가 가능한 시대를 살

²¹ 연세대 역사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 (서울 : 연세대, 1969), 134.

²² 결핵박멸운동에 참여하라, 《기독신보》, 1932.12.14일자.

²³ S. Hall,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Missionary Council of Laymen Associates, (Virginia, 1978) 436. 이 실은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에게도 보내 답신이 왔다.

아기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계몽운동에 앞장선 기독교

1) 어두운 산간벽지 선교

1907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하고 이를 기념해서 첫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도서 산간벽지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기풍 목사는 1908년 봄 처음 섬에 상륙했을 때 물매를 맞았음은 물론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산기슭에서 밤을 새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주도 300여 마을 20여만 명의 생명을 위한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²⁴ 1913년 전라노회는 제주 선교를 전라노회에 넘겨달라는 청원을 총회에 하여 허락받고 제주도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서백 선교사 부부와 최의덕 선교사 내외를 파견하여 교회의 형편도 살피고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때 모인 집회는 낮에는 성경연구반에 “유서백 부인이 1회, 최의덕 부인이 1회에 실시하였는데 첫 번은 70여 명, 두 번째는 49명의 자매들이 열심히 공부하였고 교인 평균 수효는 190명으로 저녁부흥집회에는 약 300명 가량이 모였다.”²⁵

전라노회는 제주도 선교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새 전도목사로 윤식명 목사를 임명하고, 이기풍 목사는 북쪽지역을, 윤식명 목사는 남쪽지역을 맡게 하였다. 그동안 집이 없어 고생하던 윤 목사는 여러 선교본부의 선교사들이 헌금하여 보내온 돈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법환리라는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가던 중에 태을교(보천교) 교도들로부터 윤식명 목사와 원용혁은 무수한 몽둥이 찌질을 당하

²⁴ 제주선교70년사 발간위원회 편, 《제주선교 70년사》 34

²⁵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 4회 회록〉 1910.

여 증상을 입고 위험하게 되었는데 중문파출소와 면 직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서귀포의 소천의원에 입원시켜 1개월 후에 간신히 퇴원하였으나 완전하지 못하여 목포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윤식명 목사는 왼쪽 팔에 장애가 남았고, 원용혁은 머리 상처로 탈모되어 대머리가 되었다. 제주 선교의 특징은 외국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한두 차례 인도해 주는 일은 있었지만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책임을 맡아 진행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전라노회가 전북노회와 전남노회로 분할하자 제주도 산북지역은 전북노회가 산남지역은 전남노회가 맡아 진행하였다.

1914년 이기풍 목사는 오랜 동안의 과로로 인한 신병 때문에 그 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안정을 필요로 했다. 노회에서는 1년 동안 휴양하면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후 1915년 9월부터 제주도 산간지역 선교를 최대진 목사가 대신하였다. 그의 사역으로 제주 형제자매들이 합동하여 70일 동안 전도하였는데 복음서 2천여 권과 전도지 1만 장을 배부하여 민기로 작성한 이가 40여 명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라노회는 당시 재정난으로 제주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중단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최대진 목사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자신이 바울 사도처럼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고 버티며 노력해 보았으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5개월 만에 제주를 떠나야만 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교회와 여전도회들이 특별헌금을 하여 중단된 지 몇 개월 못 되어 어려운 제주도에 김창국 목사를 보내어 선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전라노회 중 목포선교본부의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가 맥콜리(H. D. McCallie, 맵헨리) 선교사가 시작한 도서선교였다. 이들 부부는 수년간 이 사업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투신하였는데 그가 선교한 지역은 목포 앞바다에 널려 있는 섬으로 남서쪽으로 160킬로미터, 북동쪽으로 24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10만여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교였다. 비록 소형선박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많은 섬들을 순항해야 하는 그에게 해상 교통상의 어려움은 실로 지대했을 것이다. 1910년 그의 보고서를 보면 95개 섬에 있는 500여 개의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한 끝에 교회 3곳, 예배처소 25처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맥콜리 선교사의 도서선교는 간호사 출신인 아내의 도움으로 가는 곳마다 진료소를 개설하고 주민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놀라운 선교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2) 결혼 연령 제한으로 국민건강 및 성생활 보호

1907년에 조직된 독노회는 우리나라 교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습관을 고쳐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회는 1908년 부인이 돌인 사람에게는 학습과 세례받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하였고, 데릴사위나 민며느리들이 있는 교인 징계를 1910년에 결의하였다. 결혼의 신성을 강조한 교회는 1911년 혼인증서를 만들어 교회에 비치하게 하였다. 1914년에는 조혼의 폐를 막기 위하여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이상에 결혼하게 하였다.”²⁶ 이렇게 하여 가정을 지키며 국민의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였으며, 성생활의 질서와 가정의 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유교의 오랜 전통으로 남녀의 불평등 사상이 극심하여 부부 간에도 차등을 두고 살아가는 나쁜 습성을 고쳐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동네 외인들이 흥불지라도 이후부터는 밥 먹을 때에 부인들도 방에 들어와 남편과 같이 편안히 앉아서 먹기로 작정하고 또한 부부간에 높고 낮은 말 하는 것도 좋지 못하니 서로 같은 말로 대접하기로 작정하였다.²⁷

²⁶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 제2회 회의록>, (1908), 15.

²⁷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 4회 회록>, (1910), 12.

한국교회는 초기 교회 안에서도 남녀를 사이에 두고 칸막이를 하기도 하였으나 남녀가 같이 교회당에 출석하여 찬송가를 함께 부르게 됨으로 남녀평등의 사상이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여자라는 사상을 얻게 됨은 예수교의 덕입니다. 여자들에게 남자와 같이 교회직원의 선거권이 있고, 여자에게도 교회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교인 명부에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개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재혼을 허락한 것은 예수교였습니다. 재혼은 여자의 죄악이라는 사상을 깨뜨려주어 조선 여자에게 귀중한 자유를 준 것은 실로 예수교였습니다.” 또한 과부의 재혼도 갑오경장 이후 1897년 시인할 수 있도록 확고히 해나감으로 기독교의 근원적인 여성 해방과 인류 평등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권과 여성들의 해방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4.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

1) 학교 교육으로 개화된 민족

한국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의 초등학교는 서당 정도에 불과했다. 서당이란 한문이나 가르치는 기초적인 학교였지만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녀는 당시 10% 미만인 양반 자제나 여유 있는 집 자녀들뿐이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였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알고 책을 깨우칠 수 없는 문맹의 수준이었으니 우리 민족의 문명과 개화 수준에 대하여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 먼저 학교의 형태로 교육을 시작한 선교사는 언더우드였다……. 그는 1886년 2월 정부의 허가를 얻어 고아원을 설립하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고아원 학교를 키워서 대학과 신학교까지 성장시키려고 했다고 헐버트(Hulbert)에게 이야기하였다.”²⁸

초기 선교사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초

기부터 높은 교육정책과 방안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왔지만 특히 총회를 조직하고 학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더욱 철저히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곧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자녀들을 교회학교에서 공부하도록 가르치고 교회 내 자체 중 우수한 자를 교회가 도와주어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가르치는 일을 힘써 하게 하되, 교사만 아니라 학교 임원까지 공부하게 도와주도록 권하였다. 그리고 이미 있는 학교를 폐하지 아니하도록 힘쓰며 새 학교도 설립할 것인데, 만일 고등학교를 새로 설립하려면 적당한 곳에 협력하여 설립할 것이며 각 학교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되 성경과 기도를 특별히 가르쳐야 하며 국어 교육에도 힘을 쓸 것을 의결하였다.²⁹

그리고 이 시대에 벌써 기독교인들의 계속 교육과 평생 교육 및 민족의 식 교육을 강조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교육에 치중하여야 하며, 평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등 교육을 실시하되 종교적 경건과 민족의식을 그 중추로 하여야 한다”³⁰고 가르치며 실천해 나아갔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는 교회에 교회학교를 세워 주일에는 주일학교를 통해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평일에는 교회를 학교로 활용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또한 교회학교를 통하여 밤에는 야학을 하면서 부녀자들에게 그리고 한글을 알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한글 보급을 하며 문맹퇴치운동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는 1890년에 조직된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시의 주일학교는 장년들을 망라한 일종의 사경반과 흡사하였

²⁸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 4회 회록> (1910), 12.

²⁹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 4회 회록> (1910), 12.

³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cit., 255.

다. 1907년에 와서야 전통적 의미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사연합공의회(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가 세계주일학교연맹과 교섭하여 한국에서 주일학교 일을 전담할 사람을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이 결실되어 1912년 2월 서울에서 선교연합공의회와 한국교회 및 예수교서회의 대표자들 13명이 모여 ‘한국 주일학교 실행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통일 주일공과’를 편찬하였다.”³¹ 그리하여 주일학교가 날로 발전해 감으로 “주일학교 참가자 수가 정상 교회 예배 참석자 수보다 보편적으로 더 많았다. 경기도 지방 교인수는 9,915명이었는데 주일학교 학생은 14,700명이었다.”³²

이 주일학교운동은 한일합방이 되어 위기 상황에 놓인 나라와 교회에 “새 시대에 호소의 통로일 뿐 아니라 교회 내 청년들의 훈련기관이 되었다. 1913년 4월 19일 경북궁 뒤뜰에서 주일학교 전국대회가 열렸을 때 14,700명이 운집하였으며 이를 바라보던 관리들은 그 수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14년 모든 교파를 합한 주일학교 상황은 전체 주일학교 수가 2,392개교였고, 학생수는 119,496명이었다. 장로교가 주일학교에서 60%, 학생수에 있어서 67%를 차지하고 있었다.”³³

한국교회는 교회를 통한 우리말 한글성경을 보급하며 전 국민을 교육함과 동시에 대학을 세워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양정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 설립을 통하여 놀랍게 활동

하였다.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920년에 비해 1921년에는 학생수가 45% 증가하고 있었다. 기독교계 학교 학생수는 1921년 53,821명으로 1920년 87%까지 증대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3·1운동 때 나타난 기독교자들의 애국적이며 두려움 모르는 고난을 이기는 태도를 본 영향 때문이었다. 장로교 총회가 1920년 총회 안에 ‘고등교육 장려부’를 설치하여 각 노회에서 중등학교와 독실한 신앙이 있는 청년을 선택하여 외국으로 유학 보낼 일을 결정하게 된 까닭이 이 급격한 교육열의 폭발에 있었다.³⁴

1920년 기독교 학교의 수적 증가는 전대미문의 일로 전라도 한 기독교 학교는 300%가 넘어 기숙사와 교실난을 가져왔다. 아펜젤러도 처음부터 교육사업 중 영어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였고, 이 기관을 통하여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졌다. 1886년 6월에 학생 2명으로 자기 집에서 학교를 시작하여 10월에는 20명이 공부하였고, 1887년에는 고종이 ‘배재학당’이란 이름을 주어 성장시켜 나갔다. 1887년 9월 정동 근처에 조그만 초가집을 구입하여 ‘벤엘교회’를 세웠고 10월 8일 첫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가 감리교의 처음교회인 정동감리교회이다. 아펜젤러는 1888년에서 1890년까지 8도 중 6도를 도보로 걸으며 전도하였는데 아마도 7천 2백 리를 걸었을 것이다. 주로 교회 설립을 위한 후보지 물색과 노방전도, 개인 방문 등을 위해 열정적인 방법으로 전도여행을 하였다.

³¹ J. G. Holdcroft, Sunday School Work and Methods, The Christian Movement, (1914), p. 499.

³²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회 회의록> (1913), 37, 68, 1913

³³ The Corner Stone of Independence Arch, Editorial Department, The Korean Repository, Nov. 1986. 458.

애국가가 교회관계 의식에서 제일 처음 불려진 것은 1896년 11월 21일의 독립문 정초식 때의 일이다. 그 때 배재학생들이 ‘조선’, ‘독립’ 및 ‘행진’ 이

³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352-353.

란 노래를 불렀고 감리교 아펜젤러가 기도를 맡았다. 이때 참집된 인원은 5천 명이었다.³⁵

1896년 고종의 탄신일에 교회가 경축 기도일로 모였는데 1896년 2월 각 교회에서 “대군주 폐하와 조선인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미와 기도를 할 터이요 오후 네 시에 모화관에 모여 애국가로 노래하고”³⁶라고 독립신문에 기록되었다. 즉 경축일 행사 때 찬송가와 애국가를 함께 부른 것이다. 그는 교육사업과 전도사업 다음으로 성경 번역에 큰 관심을 가졌다. 1902년 6월 첫 주에 목포에서 성서번역위원들이 모이게 되어 참석을 위해 일본 상선인 ‘구마가와마루 배’로 조사 조한규와 방학으로 고향 목포로 가던 여학생 하나가 동승하고 있었다. 이 배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인천을 향하여 오던 일본상선 ‘기소가와마루 배’와 충돌하여 순식간에 침몰되어 갔고 아펜젤러 목사는 구명선으로 탈출하였으나 같이 가던 일행이 보이지 않자 그들을 구하러 다시 배로 들어갔는데 그때 배가 완전히 침몰되고 말았다. 그는 45세의 젊은 나이에 17년간의 한국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희생자가 26명이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딸 엘리스는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느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1909년 웨슬레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고향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교편을 잡고 있는 동안 그는 깊이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의 거룩하고 숭고한 순교자의 정신을 자신이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하여 1915년 30세에 한국 선교사로 지원하여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리하여 그는 이화학당에

서 영어와 역사를 맡았으며, 언제나 불쌍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그는 1919년 3·1 운동 당시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과 고문당하는 소식을 듣고 보면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한 스승이요, 자매였다. 1922년에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이화학당 학교기금을 모금하여 1924년에 땅 5만 평을 구입하고 1925년에는 이화전문학교를 여자대학으로 승격시키려고 했지만 일본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이화 전문학교’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취임한 후 학교를 정비했으며 낡은 껍질을 벗기고 새 시대에 맞도록 모든 시설들을 확충해 나갔다. 그의 아들 헨리 아펜젤러도 배재학당 교장으로 열심히 일하였다. 초기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하여 각 도시와 지역에서 충실하게 우리 민족 개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세운 새뮤얼 모펫(Samuel Austin Moffett, 마포삼열)은 1864년 1월 25일 미국 인디애나 주 메디슨 시에서 태어나 1888년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후 1889년 3월 26일에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의 문을 두드렸다.

조선은 중국에 소속된 하나의 작은 왕국이며 깊은 산 숲에는 곰과 호랑이들이 득실거리고 사람들은 미개한 야만인들이며 도전적인 데다가 해적과 같고, 일부다처주의가 일반화되어 있고, 부패한 불교가 왕성한 종교적 나라이다. 또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³⁷

이러한 미지의 나라, 무지의 나라, 야수와 야만인이 있다는 한국을 그

³⁵ The Corner Stone of Independence Arch, Editorial Department, The Korean Repository (1896, 11월호), 458.

³⁶ <독립신문>, 1896년 9월 1일자.

³⁷ Ibid., 60-68.

는 선교지로 선택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까?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1889년 4월 15일에 선교부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12월에 미국을 떠나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1890년 1월 20일, 그의 25세 생일날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그는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평양을 선교지로 삼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나갔다. 마포삼열이 평양에 선교본부를 세우려 할 때 평양 인구는 약 1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³⁸ “1893년 2월 말엽에 마포삼열 목사는 이길함 목사와 함께 평양으로 떠나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1893년 11월에 평양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³⁹ 마포삼열은 선교본부를 평양으로 옮긴 후 ‘사경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성경공부와 전도인들을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한국교회 성장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 증가일로에 있는 교회의 요청에 의해 교역자 양성이라는 지상과제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890년 마포삼열이 한국에 온 그해 6월 초기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네비우스(Nevius)를 초청하여 선교방법론을 듣던 해이기도 했다. 네비우스의 많은 강의 중 사경회를 중요시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여 교인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이 시작되었고, 1892년에는 서울에서 사경회 형식으로 ‘신학공부반’을 조직하여 한 달 동안 지도자 양성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의주에서는 여름철에 사경회를 시작하였다. 이들 중에서 서울의 신학반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요구가 대단하였다. 그리하여 마포삼열 선교사는 1900년 서울에서부터 실시해 오던 신학공부반을 정규 신학교로 승격시켜 볼 생각으로 미국 선교본부에 교역자

양성기관인 신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선교본부에서는 신학교 설립을 허락함과 동시에 필요한 기금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선교사공의회’에서 신학교 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는 1901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 ‘성경연구반’이 모체가 되어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설립, 교장을 맡아 성장시켜 나갔다.

마포삼열은 1903년 10월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두었던 평양 제중원 자리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있어 부지를 내놓고 숭의여자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1906년 한국에서 대학의 필요성을 더욱 느껴 숭실학당 내에 대학부를 신설하고, 1907년 정부의 인가를 얻어 최초의 대학을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숭실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는 1919년 ‘신교육령’이란 이름하에 시기적으로 미션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어려운 1918-1928년에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그가 세운 세 학교를 일컬어 ‘삼송’이라고 하였다. 이 무렵 그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던 맥코믹(Mrs. Nettie F. McComick) 여사로부터 5,500달러(1만 1천 원)의 기부금을 얻는 데 성공했다.

맥코믹 여사는 이전부터 한국의 선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포삼열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돕고 있었다. 교정은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 언덕에 5천 평을 마련하고 정초예배를 드리고 몇 달 만에 완공되어 마포삼열의 집에서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다. 맥코믹 여사는 기숙사를 위해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에 1만 달러를 보내주었다. 1920년부터 학생수가 날이 갈수록 더해 신학교가 협소하여 가르칠 수 없게 되자 이 실정을 듣고 맥코믹 여사는 1922년 3만 5천 달러(7만여 원)를 보내주어 1922년 5월 15일 정초식을 가지고 새로운 양식의 신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하여 평양의 대소집회가 이곳에서 열릴 수 있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초대 교장으로 임명을 받고 회갑을 맞던 1925년까지 24년간 목회자 양성

³⁸ Ibid., 73-104.

³⁹ Ibid., 145-147.

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⁴⁰

1935년 3월 야쓰다게가 평안남도 지사로 부임하면서 기독교 학교에 먼저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신학교도 신사참배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함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평양장으로 회신학교뿐 아니라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 숭의여자중학교 이사장인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그리하여 그는 뒤를 이어 신학교 교장이 된 로버트(S. L. Roberts, 나부열) 선교사와 맥퀸(G. S. McCune, 윤산은) 선교사와 밤 깊도록 협의한 끝에 “폐교가 되더라도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런 일로 고민한 끝에 심신이 쇠약해지고 식음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그 이상 견디지 못하여 35년간 섬겨오던 신학교 이사장직을 사면하고 말았다. 그는 폐교된 평양장으로 회신학교를 바라보면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몰라서 하나님을 등진 백성이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하였고, 그가 찾아오던 그날엔 “여리고의 도성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던 평양이었지만 그가 평양을 떠날 때에는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주일 아침이면 평양은 교회당 종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평양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1천여 교회가 별과 같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은퇴할 무렵 15만 명의 신자가 생겼고, 1천여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800명에 달했으며, 졸업생들은 그를 영적 아버지로 모셨다. 그는 세계선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업적은 모두 마포삼열의 도보전도의 열매였다. 그의 도보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한 사랑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조선 교회 사뿐만 아니라 조선 근대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본인이다. 그

는 우리나라가 정신적 무장이 없어서 넘어진 민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신적, 도덕적 자각과 사회정의의 생활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의 평양을 예루살렘으로 만든 마포삼열 박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잊을 수 없는 은인이요, 개척자요, 선각자였다. 때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했고, 어떤 때는 여리고의 험한 길을 걸어야 했으며, 산을 넘을 때면 발이 부르터 피가 흘렀고 산을 내려오면 이미 날이 저물어버렸다. 지각 없는 악한의 돌팔매에 쓰러져 피를 흘리면서도 그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폭도의 습격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한마디의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는 한 사람이라도 지나쳐버리기를 아쉬워하며 같이 걸으면서 예수를 전하였고 아무리 험소한 골짜기나 오솔길이라도 거기에 인가만 있으면 두 발로 걸어서 찾아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걷기를 좋아했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조선의 산천을 구경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걸어야만 조선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거리의 사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려고 노력한 충성된 종이였다. 초기 선교사들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통하여 위로는 대학에서부터 아래로는 각 교회마다 교회학교를 세워 국민을 개화해 나갔으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길러 내었다. 선교사들은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와 문명을 없이하여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차원 높은 교육정책을 실천하였다.

2) 여성 교육으로 세계적 한국 여성으로 성장

여성 교육으로 세계적인 한국 여성을 길러낸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전도회를 통한 운동과 교회 밖에서 일반 기독교 여성 학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교회 안에서의 여전도회를 통한 교육

⁴⁰ H. A. Rhodes.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in USA, 1884-1934, 438-439.

과 전도활동은 1886년 여의사 엘러스(A. J. Ellers)가 제증원에 부인과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인간애적 차원에서 병의 치료를 시작하였다. 장로교 의사 헤론 선교사도 서울 동부에서 전도하고, 성경반을 가르치며, 여러 사람을 믿게 하고, 1896년 재봉틀을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기포드(D. L. Gifford, 기보) 선교사 부인도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그레함 리 선교사 부인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도 서울과 황해도 장연에서 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우리나라 각 지역 선교본부에서 수많은 선교사의 부인들과 여자 선교사들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1899년에는 서울의 교인 237명 중 114명이 여인들이었다.⁴¹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들이 1892년부터는 개별 전도에 무급으로 나섰고, 심지어 성경공부반에서 교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전에 없던 새 역사의 모습이었고, 이후 이것은 교회의 선교정책이 되었다. 조선교회의 노회 단위 여전도회가 조직된 것은 1915년부터요, 전국연합회 창립은 1928년의 일이었다.⁴² 1926년 캐나다 연합장로교 소속 맥도날드(D. A. MacDonald)가 “제도의 결함이 있어서 여자의 숨어 있는 재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 자체가 그 위대하고 유용한 국민을 빼앗음이 될 뿐 아니라 정신상, 도덕상으로 생기는 직접 손실을 자취함이라”⁴³고 가르치고, 원산을 중심한 함경도 지역의 선교를 맡았던 캐나다 선교부가 여전도사에게 목회권을 주도록 함경노회에서 총회에 요구하였으나 총회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직분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 모든 영역에서 겸허하게 활동해 왔으며 말씀 공부와 함께 교회 성장에 앞장서 왔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한 대학 수준의 교육은 이화대학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M. F. Scranton)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제조업을 하던 남편과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에 그의 나이 40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16세 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조선 의료 선교사로 같이 온 의사 스크랜턴(W. B. Scranton)이었다. 스크랜턴 대부(大夫)는 1886년 6월 52세의 나이로 입국하여 16채의 초가집과 빈터가 있는 땅(6,120평)을 450달러에 사서 ‘이화학당’을 짓고 그해 11월에 여학교를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1887년 가을 명성황후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⁴⁴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살 생활환경에서 가정 부인으로서의 모범이 되게 하고 또 친척과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⁴⁵

그는 6년 후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동대문에 여성교회를 설립하였고, 1895년에는 남대문에 ‘상동교회’를 설립하였다. 상동교회는 애국 인사들이 많이 활동한 애국운동의 본부 역할을 하였다. 그는 1896년에 과로로 잠시 미국으로 귀국하였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1897년 한국에 돌아와 감리교 여선교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전도활동을 계속하던 중 1929년 10월 8일 9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의 희생적인 삶을 기리기 위해서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무덤 앞에 이화

⁴¹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140.

⁴² Ibid., 448-449.

⁴³ Ibid., 449.

⁴⁴ Ibid., 104.

⁴⁵ Ibid., 104.

학당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조선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활동은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턴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화학당은 한국 여성 교육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활란 박사의 소명적 생애를 통하여 여성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김활란(1899-1964)은 1918년 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슬리언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석사 학위를 받고 각종 기독교회의 등에 조선 대표로 참가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1930년 그는 두 번째의 미국 유학길에 올라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1931년 철학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⁴⁶ 1939년 그는 마침내 이화여전 교장에 취임하여 개교 53년 만에 이화여전으로는 2대 교장이 되었다. 일제는 미션계 학교에도 신사 참배와 가미다나(神柵) 제사 등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폐교 처분을 내렸다. 당시 미일 관계 악화로 미국인들을 스파이로 모는 등 박해가 심해지자 1940년 이화에서 가르치던 선교사들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이화대학 본관 지붕에 달린 십자기를 떼어내고, 창설자 스크랜턴의 동상도 철거해 버리고 일본 군대를 주둔시키기까지 했다. 1945년 4월에는 ‘이화대학’을 ‘경성여자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꿔버렸다. 김활란 박사는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그들의 간악한 꾀박 속에 자유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으며, 젊은 조선 여성들에게는 정신근로대(위안부) 등 일제의 총칼에 위협을 느껴 일제를 협력했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사랑이신 주님은 한 날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끊임없이 붙들어주셨다. 부족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라고 하였다.⁴⁷

⁴⁶ 성갑식, op.cit., 154.

⁴⁷ 김활란 외 4인, 《나는 왜기독교를 믿는가》(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7), 7-8.

우리는 그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죄를 숨김 없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 신앙생활보다 더 기쁘고 만족한 생활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남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남을 지배하기를 또한 원치 아니한다.⁴⁸

김활란은 지난날의 일제 말엽에 지은 젓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은퇴 후에 이화의 교직원과 학생들로 “금란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전도했다. 그리고 1970년 2월 10일, 71세 생일을 앞두고 당뇨와 동맥경화증을 앓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싫다. 더 풍성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환송해 주는 환송예배를 장례식 대신에 해주기를 바란다.”⁴⁹

1994년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해로 총회에 헌의안을 제출한 지 62년 만에 여자 목사와 장로가 탄생함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획을 긋는 해가 되었다. 여성 안수가 되지 못하여 국제화시대에 다른 나라 교회와 교단 여성들은 국제대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한국 여성 지도자들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었다. 다른 나라 여성지도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며 성찬을 집례하는데 우리 한국 여성 지도자들은 그 사역을 하지 못하다가 장로와 목사직을 받게 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직분의 문제로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오늘 한국 여성은 세계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게 되었다.

3) 산업 발전을 향한 적극적 계몽운동

초기 선교사들과 교회는 나라 전체에 만연한 빈곤과 경제적 모순의 문

⁴⁸ Ibid., 10-11.

⁴⁹ 성갑식, op.cit., 155.

제를 보면서 대단한 도전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교육시켜 나갔다. 당시 우리나라는 관청의 가렴주구로 국민은 나태와 빈곤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산업 발전과 경제 향상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물산장려 계몽운동은 3·1 운동 직후 일어난 운동으로 민족운동과 문화운동을 일으켜 앞날을 대비하려 했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조만식, 김동원, 이승훈 등 기독교 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운동이다. 이 운동의 주요 내용은 토산품 애용 운동, 일화배척 운동, 외래품 배척 운동이었으며 장로교 소속의 면려청년회, 장로회 총회 농촌부, 각 노회에서 이 운동을 채택하여 발전시키는 등 기독교 내에서도 이를 하나의 신앙운동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⁵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 생활은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참으로 사람다운 발전을 희망할 수 있으리요? 우리 생활의 제일 조건은 곧 의식주 문제, 즉 산업적 기초가 파멸을 당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같은 경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장려 운동을 계몽하기 위하여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고 첫째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이와 같은 각오와 이와 같은 노력 없이는 조선 사람이 그 생활을 유지하고 그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리요.⁵¹

당시 우리나라는 조그만 농사일에도 관청의 가렴주구가 심하였지만

동시에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정직과 성실의 상업윤리 및 근로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부터 가르쳐 나갔다. “참 종교를 신봉하는 실업가는 자기 신용을 금전보다 몇 배나 존중히 여기는 고로 계약을 지키며 불완전하거나 좋지 못한 물품은 제조하지도 아니하며 팔지도 아니하며, 물건 값에 추호도 에누리나 없으므로 한 번 명예를 얻으면 필경은 큰 공업을 성취키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⁵²라고 가르치며 계몽해 나갔다. 또한 교회는 유통거래의 합리성, 상품의 우수성, 신용, 그리고 실업인이 가져야 할 윤리성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청교도적 윤리와 자본주의의 근원적인 모습임을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스며들자 그들은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과 이웃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하여 당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895년에서 1903년에 우리나라의 항구를 통한 무역고는 1895년 백 만 달러에서 1903년에는 천사백 만 달러로 성장하고 있었다.⁵³

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사회적인 기반이 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반은 이런 풍토가 전혀 조성되지 못하였고, 근면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건은 관공서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나태해지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아래서는 산업 발전과 경제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스스로 돕고 스스로 번영시킬 줄 아는 능력을

⁵⁰ 세계교회협의회, *op. cit.*, 88.

⁵¹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서울 교문사, 1984) 668-670.

⁵² 〈그리스도신보〉, 1912. 8월 30일자.

⁵³ W.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1907, 신복용 역 (서울: 탐구사, 1976), 191-192.

가르쳤으며, 이러한 교훈은 성경적 복음에서 비롯되었다. 장로교의 대답하고도 적시에 실시된 자조자립정책이 이런 정신에 촉진제 구실을 하였다.”⁵⁴ 장로교 발행의 〈그리스도신보〉는 그 창간호부터 국민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산업인 농업과 농민들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계몽해 나갔다. 그리하여 미국 공사 실(J. M. B. Sill)의 글을 실으면서 농사 개량법을 연재하였다.

이후 신문에는 농사의 이치를 여러 번 기록할 것이니 이 법을 자세히 보고 이 이치대로 농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었다. 장로교뿐 아니라 감리교에서도 그리고 침례교의 펜윅(M. C. Fenwick)의 농업기술 전문가의 글들을 신문에 연재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사과나무 재배의 기술을 가졌던 다위(G. W. Dye)의 글도 계속 실어 농사법을 보급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한 분야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시간 절약과 능률의 극대화와 안전에서부터 소를 기르고 새끼를 낳게 될 때의 방법과 외양간 짓는 방법, 면화와 직물, 기름 짜는 방법, 파 심고 양털 짜는 방법, 토양 이용법과 농업 지식 전달과 농업 개화에 이르기까지 당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나갔다. 사과 재배법과 벌레 구충법을 가르치며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교회마다 과수원을 하나씩 두어 자립정신도 기르며 여유 있는 생활로 나아가게 하였다.⁵⁵

한국교회는 산업화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고 하여도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에 교육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고 혁신적이거나 혁명적인 방법을 거부하였다. 기독교의 사회개혁은 복음적 정신의 내적 윤리의식

⁵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169.

⁵⁵ *Ibid.*, 71-172.

으로 그 추진력을 삼고, 민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전통에 대한 존경, 그리고 왕을 존경하며 충군적 기상으로 애국심을 가르치면서 내실에 차고 넘쳐서 필경 밖으로 나타나는 점진적 개혁으로 이끌어갔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강력한 운동이었다.⁵⁶ 교회가 바라는 것은 다만 개인 인격의 재생,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의 평화, 정부의 안정이나 거래의 복리에 불가결한 정직과 도덕, 그리고 정의의 통치와 가르침이었고 비전이었다. 교육에 의한 개혁은 얼른 보면 멀고, 느리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길은 실수가 없는 길이요, 가장 완전한 결실을 얻는 길임을 배워야 할 것이다.

4) 산업의 주축을 이룬 농촌 계몽운동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온 의사이며 목사였던 귀츨라프(K. F. A. Gutzlaff)는 1803년 7월 독일 포메라니아(Pomerania) 지방의 프리츠(Prytz)에서 유대계 독일인으로 태어났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발상지였던 할레(Halle)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가 네덜란드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32년 7월 17일이었다.

그가 서해안인 충청도 홍성 고대도에 상륙하여 약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것이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⁵⁷

그들은 통상을 원한다는 청원서와 선물들을 보냈는데 귀츨라프는 서울에서 회답이 오는 동안 한국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감시가 소홀할 때 섬 사람들에게 성경과 의약품을 나누어주었다. 또한 이곳에 머무는

⁵⁶ *Ibid.*, 173.

⁵⁷ 새문안교회 당회, 《새문안교회 70년사》(서울:종로구 새문안교회, 1958), 13.

동안 한국 역사에 뜻깊은 일을 하였는데 성경, 전도지, 약의 종자 등을 그곳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동시에 감자 씨를 나누어주면서 그 심는 방법과 재배방법을 가르쳐준 것이다. 이에 따라 감자를 재배하게 하여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게 한 것은 귀츨라프의 공헌이 아닐 수 없다.⁵⁸

캐나다 선교본부 맥케이(R. P. McKay)는 1908년 초에 이런 글을 남겼다. “선교사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제의 무도한 잔학 행위나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으로 보인다. 나는 20세기보다는 중세기를 방불케 하는 이런 일제 압제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온통 저항한다.”⁵⁹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일제는 서울과 특히 평양에서 군사 수용을 구실로 막대한 농토를 수탈하였다. 서울에서도 남산과 한강 사이의 광대한 옥토에서 농민 150호를 무일푼 보상 없이 철거시키고 평양의 의성에서는 3천 에이커의 농장을 강탈한 사건이 1905년에 일어났다.

평양에서만 1904년 234,000 정보, 1905년에는 580,000정보의 수탈과 200여 농가구의 무보상 추방으로 강탈을 자행한 일제 군부는 1906년 7월에는 누계 8,000여 농민들을 추방하고 3,400,380 정보의 농토를 계속 수탈하였다.⁶⁰

이러한 일제의 강탈행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은 1920년대에도 조금도 큰 진보를 보이지

못했다. 일제의 체계적인 농촌 수탈정책으로 가혹한 농촌경제는 날로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비싼 물가고로 인하여 한 끼니 이상 먹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었으며, 추운 겨울철에 땅에 굴을 파고 추운 겨울을 명석으로 지새는 이들을 보노라면 터지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한 선교사는 말하고 있다.

조선 농촌의 심각한 문제는 소작농의 절대 빈곤에 있었다. 1925년 전 농토인구의 76.8%가 소작농이었다. 호당 평균 수입이 102원에 평균 지출 105원이란 역조였고 해마다 채우는 쌀여 면할 날이 없었다. 그들은 반 이상의 쌀 수확, 35% 이상의 밭 수확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다. 거기에 세금, 비료, 지주에게 선물까지 하고 나면 3분의 1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처절한 경제적 궁핍으로 한국 백성의 반이 기아상태를 목격해야 했고, 나무 열매나 초근으로 연명하며 땅굴에서 사는 이 백성의 가난과 비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¹

이렇게 일제에 강제 수탈당하고 도탄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선교사들이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교회는 실망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을 해나가야 했다. “1924년 북한 지역의 기독교 가구는 40%가 평균 60원의 빚을 연 3할 이자로 지고 있었으며 서울 부근에서는 80%가 평균 100원을 연 4.8할의 이율에 빚지고, 남한지역에서 81% 기독교인 가구가 그들 수입보다 많은 빚을 지고 3.6할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여기 좌절의 심리학이 깊이 깔리지 않을 수 없었다.”⁶²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소득이 없을 때 인간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교회의 농촌계몽운동은 1926년 4월 YMCA에서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⁵⁸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1》(1997, 교문사), 129.

⁵⁹ H. B. Hulbert, *Japanese and Missionaries in Korea* (New York, Doubleday, 1906), 206.

⁶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1984.

⁶¹ *Ibid.*, 375-376.

그들의 설립 목적은 “우리는 조선에서 농촌사업이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우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협력할 것이며 그들 일상과제에서 정신적 과제를 도우려고 한다. 우리는 촌락에서 문명 퇴치에 전념할 것이며, 농촌 인구의 필요한 다른 교육과정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개선된 농업방법, 가정의 향상, 마을산업, 협동정신의 합법적이고 우에 넘치는 표현을 통해서 경제적 조건 향상을 위해 일할 것이다.” 기독교 청년회는 교회를 돕고 그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출발하였다.⁶³

한국 농업 선교의 선구자 러츠(D. N. Lutz)는 북장로교 파송 농업 선교사로 1921년에 내한하여 과수원 재배의 혁신적 개량, 언덕진 산전의 개간과 콩류의 재배 및 목축, 토양 분석, 깡통산업에서 결정적 공헌을 남긴 인물이다. 지방 교회치고 과수원을 소유하고 경작하지 않는 곳이 없으리만큼 되었던 것도 그의 영향 때문이었다.⁶⁴

한편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농촌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은 김용기(1912~1988년) 장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경기도 양주에서 중농인 김춘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어느 전도인으로부터 받은 전도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영생 얻는 진리”에 감동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양반 가문에서는 드물게 예수교인이 되었다. 이 지역

은 일찍부터 선교사들의 전도가 시작되었던 곳으로 1902년에는 양주군 와부면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주로 클라크(C. A. Clark, 곡안련)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그가 1919년 14세 때에 양주에 있는 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이 학교는 몽양 여운형 선생이 설립한 학교였다. 그는 이 학교에서 성경, 산술, 지리, 역사를 배웠고, 여기서 여운형을 만나 참다운 지도력에 대한 훈련을 쌓게 되었다. 그는 19세에 광동중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만들어 볼 생각도 했으나 심양(봉천) 서탑교회의 이성락 목사의 지도를 받아 귀향하였고, 성경을 탐독하면서 강화도 마이산으로 가서 40일간 기도예를 몸들던 적도 있었다.

그가 23세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창세기 3장 16절에 근거하여 “농사꾼이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58세에 돌아가셨다. 그 유언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역대로 지식인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무식한 촌민들만 이 농사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명 등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되어 결국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꾼으로 지낸 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언이 큰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농사짓기에 나선 후 농촌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촌’은 10가정이 이루는 촌락으로 계획하였다.

김용기는 경기도 광주에서 돈놀이하는 사람을 찾아가 담보 없이 4백원을 빌렸다. 빌린 돈에서 90원으로 마을 너머의 평당 3전 하는 산 3천평을 사서 개간을 시작하여 과목을 심고, 젖염소 한 마리를 사서 키우며 개간에 뛰어들었다. 개간사업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것은 ‘할 수 있다’는 확신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뒤 5회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 그리고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의 이상촌에서 특별히 주

⁶² E. S. Brunner, Rural Korea, “A Preliminary Survey of Economic, Social and Religious Condition”, The Report of the Jerusalem Meeting of international Mission Conference (1928) Vol. IV, op.cit., 110-111.

⁶³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443.

⁶⁴ Ibid., 442-444.

목되는 것은, 이 이상촌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동지애로 뭉쳐 자신감을 얻었고 이 이상을 조선 전체적으로 전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상촌은 일제 강점하에서 민족애로 뭉쳐진 공동체로 그들이 이상촌을 설립하려고 한 것도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국의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식민지 백성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사회적 민족 모순을 해결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상촌은 민족 해방 운동자들의 은신처 역할도 감당하였으며, 저녁에는 단파 라디오를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이상촌 마을의 각 집 문전과 정원에는 대여섯 그루 이상씩의 무궁화가 있었을 정도로 그들의 민족의식은 남달랐다.

그의 농민운동사에서 그가 본격적으로 이상촌 건립을 목표로 농민운동에 나서는 것은 1930년대 중반인 1936년경으로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는 등 ‘전시비상체제’를 강화하던 시기였다. 말하자면, 한국 농민에 대한 일제의 수탈정책이 조선과 일본이 동조하고 ‘농공병진’이란 명분하에 한국을 강점하고, 토지소유관계를 근대화한다는 명분 아래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고 빼앗은 토지를 관리케 하면서 일본인을 이민시켰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토지와 경작권을 빼앗기고 러시아와 만주로 살 길을 찾아 이주하는 자들이 많았다.

한국인들은 일제가 너무도 무참하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착취함으로써 각 곳에서 ‘소작쟁의’를 일으키고 있었고, 일제는 소작쟁의를 막기 위하여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을 제정했다. 1930년대에 들어 일제는 제2, 제3차 미곡증산계획을 세웠으나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고, 농촌진흥운동과 자력갱신운동을 벌이며 ‘조선소작조정령’(1934년)을 반포하였지만 농촌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이 무렵에 김용기는 이상촌 운동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고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농촌운동은 일제의 전시 체제 강화로 농촌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어 농민들이 신음하면서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

던 한국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복돋워주는 운동으로 등장하였다. 그의 이상촌 운동은 기독교 계통의 농민운동으로 문맹 퇴치, 농사 개량, 부업 장려, 농사강습회의 개최 및 농촌 지도자 양성기관의 설립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의 이상촌 운동은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일제가 강요하는 공출을 피하기 위해 공출하지 않는 고구마 생산을 장려하였던 것은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사상’에 나타난 대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농업을 하나님께 내신 천직으로 알고 거기에 몰두했던 선각자였다. 그의 농촌 농민운동은 다른 기독교 농민운동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의 기독교 신앙과 합리적인 사고와 지식, 실천적인 활동이 한국의 농촌사업, 농업경영, 농민의 계몽과 교육에 미친 공헌으로 그는 일찍이 성자로 추앙받던 의료계의 장기려와 함께 한국 기독교계가 배출한 훌륭한 농민 운동가였다. 해방 후에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해서도 기여한 바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조선 농촌운동가이며 애국자요, 목사였던 배민수(1896-1968년)는 충북 청주에서 의병의 아들로 출생하여 3·1운동 때에도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1년 2개월 동안 투옥당했으며, 1928년 미국에 건너가 유학한 후 1934년에 귀국하여 농촌선교에 뜻을 두고 장로교 총회에 농촌부를 신설하고 초대 총무가 되어 본격적인 농촌운동을 전개하였다.⁶⁵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농우회를 조직하고 이것을 민족운동의 기본단위로 하려고 시도했다.

한국교회는 1934년 장로교가 농촌 순회 지도를 하면서 5,447명에게 가르친 것 역시 영적인 교육과 함께 육적인 지식이었고, 1935년 순회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은 15개소 4,500명에게 지도하여 영적 감회가 넘쳐 통회함

⁶⁵ 세계개척교회연맹, op. cit., 358.

과 동시에 지도받은 대로 실시하겠다고 결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1925년 우리나라 소작농은 76.8%로 절대 빈곤 상태였으며, 추운 겨울을 명석으로 지새야 하는 이들을 보노라면 터지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다고 글을 남긴 선교사들이 있다. 일제의 이런 착취를 보는 선교사들과 직접 겪어야 하는 한국교회는 무장 투쟁은 삼가면서도 정신적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정당한 합법적 처우를 요청하며 관철해 나아갔다. 이렇게 나라의 실정을 바로 잡아가려고 진력하였으나 국민은 갈수록 어려움에 빠졌다. 그들은 농촌사회를 쪼먹고 있던 낙망과 좌절에서 일어서도록 하면서 동시에 악습과 미신적 숙명론을 극복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강인한 결단력의 인격을 갖게 하는 데 노력하였다.

5. 소외당한 자를 위한 계몽운동

1) 고아들을 위한 자선사업

1886년 언더우드 목사는 “고아원을 자기 집에 세우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김규식 박사도 그 고아 중에 하나였다. 언더우드의 가정에서 고아원을 할 때 그의 부인이 그들을 어머니처럼 돌보며 헌신했으며 과로로 지쳐 미국에 건너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고아원은 후에 ‘예수교 학당’으로 개칭되었고, 후에 경신학교로 발전하였다.”⁶⁶ 1900년 다른 선교사들도 자선사업에 눈을 돌려 서울의 모화관(고아원)에 20명이 넘는 고아를 수용하였다. 선교사들이 불쌍한 고아들을 모아 생활하게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교육 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또한 생업을 위한 교육도 하였다. 농사하는 일, 물건을 제조하는 일, 여자아이들에게는 가사 돌보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등을 가르쳤다.

⁶⁶ 성갑식, 《그리스도교대사전》, 702.

1904년 군산에서 일하고 있던 전킨(W. M. Junkin, 전위렴) 목사가 너무 몸을 돌보지 않고 과역하였기 때문에 이질이 재발하여 선교회에서는 그의 건강을 도와줄 목적으로 그를 전주 서문밖교회로 전임시키고 전주 근처 20리 이상의 순회전도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의 불붙는 열정은 사그라질 줄 몰랐다. 1906년에는 전주 서문밖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주 부근에 6개 예배처소를 설립하였다.

포사이드(Dr. W. Forsythe) 의사와 더불어 고아원을 만들어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선교부에서는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바쳐 봉사한 군산에 그의 시신을 안장하였다. 그의 무덤 옆에는 전일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세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의 아내는 비문에 한글로 쓰기를 “전 목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이라 하였다.⁶⁷

초기 선교사들은 이런 일을 하였지만 한국교회나 실업인들 중에서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구세군은 이미 1919년 거지들을 위한 시설을 구세군사관학교에 마련할 수 있었다. 장로교회는 1935년 12월 1일 김익두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삼동회’를 피어선 성경학원에 설치하여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방과 따뜻한 처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무료 숙박을 하게 하여 위급한 일을 막아보려 하였다.⁶⁸

1919년 1월 오금선(1878-1963년)이 서대문 옥천동의 옛 언더우드 구제원의 터를 3천여 평 구입하여 경성보육유원을 설립하였고 1931년 경성 양로원과 함께 전실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⁶⁹

⁶⁷ G. T. Brown, Ibid., 47-48.

⁶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편, op. cit., 423-424.

교회의 고아들을 돌보며 교육하는 일은 일제시대보다는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미국의 기독교 기관들의 협력을 받으며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밥 피얼스(Bob Pierce) 박사가 전쟁 중에 있는 한국을 방문하여 고아원을 설립하여 많이 도우며 미국 여러 기관의 협력을 얻어냄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한국 전쟁 고아의 모습을 전하며 한국을 도울 사람을 찾는 일을 사명으로 느껴 행동한 것이다. 이런 호소를 통하여 한국에 와서 직접 일한 사람은 말리 홀트 부부였다. 이들은 밥 피얼스 박사의 간곡한 목소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 직접 한국에 와서 살면서 부모처럼 고아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1955년부터 지난 45년간 26개국에 20여만 명의 어린 생명에게 부모를 연결해 주었다.

2) 양반과 천민의 계급의식 타파와 한 형제자매 실현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특히 5백 년 유교의 전통 안에서 양반과 상민의 엄격한 차이가 있어서 서로가 한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나라였다. 이런 사회 신분제도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천민의 해방운동을 기독교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려고 노력하였다.

1895년 4월 12일 서울 반잣골에 사는 백정 일동이 정부에 호소하는 진정문 하나를 보냈다. “우리는 5백 년 동안 광대보다도 더 비참한, 가장 천한 사람들로, 갓이나 망건도 쓰지 못하면서 사회의 천대를 받아 이제 그 비통이 마음에 와 뼈에 사무쳤습니다. 이제 조정이 옛 악습을 폐기하는 작업을 한다 함

에 불초 무릎 꿇고 소청하오니 팔도에 공문을 보내 백정들을 더 이상 구박 못하게 하고 우리로 갓과 망건을 쓰도록 해주십시오.” 이 백정들은 이 후에도 여러 번 진정서를 다른 조건으로 해서 제출하였고 1896년 3월(음력)에는 그들도 호적에 올리지도록 간청 역시 윤택되었다.”⁷⁰

이들의 아픔 중에 가장 컸던 것 중 하나는 “삼척동자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⁷¹

이런 대담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곤당골에 사는 백정 박 씨와 지 씨였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회변혁의 구체적 제도 개혁을 수행하게 한 사람이 바로 무어(S. F. Moore, 모삼열, 1860-1906년) 선교사였다. 그는 1892년 9월에 한국에 온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맥코믹 신학교 출신으로 고종에게 전도할 정도로 열정의 사람이었다. 실상 교회는 이 진정서를 보내고, 허락이 나서 전국에 공포문을 보내고 그 허락이 나붙을 때까지 특별기도제목으로 삼아 계속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 진정은 곧 수락되고 갓과 망건을 자유로 쓰되 내적 교양의 향상도 아울러 갖추라는 내부의 교시가 동봉되어 있었다. 1898년 3월에 수원 지방에서만 백정과 그의 가족들이 합하여 12명이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 부근에서 교회를 창설하는 데 앞장섰던 백정이 여럿이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부수고 한국교회는 양반과 천민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였다.

⁶⁹ Ibid., 424.

⁷⁰ 대한예수교장회총회 편, op. cit., 123.

⁷¹ 세계개혁교회연맹, op. cit., 35.

3) 우상 타파로 국민정신 계몽

당시 양반들과 지배적 소수자(dominant minority) 밑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던 민중은 생을 자포자기하며 고려시대 이후 성행해 온 풍수사상과 고래로 우리 민족의 심성을 잘못 이끌어 온 무속사상(Shamanism)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1898년 한국 사람들이 미신에 영적인 노예가 되어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 쓰는 비용이 그해 국가의 세금 수입의 거의 세 배나 달했었다.⁷²

그 결과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으로 삶이 말이 아니었고, 위로는 대궐로부터 아래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오막살이에 이르기까지 미신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클라크(Rev W.M. Clark, 객안련)는 샤머니즘(Shamanism)은 교육받은 계층보다도 보통이나 무학 계층의 사람들의 종교라고 하였고, 기포드 목사(Rev D. L. Gifford, 기보)는 오늘 샤머니즘은 한국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종교라고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 사상은 살아 계신 부모에게 드려야 할 효성을 살아 계실 때에는 온전히 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드리는 일에만 치중하였다. 이러한 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조상 숭배와 제사가 미신화되어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우상 행위로 전락되어 있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철저히 제사를 금지시키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성을 다하도록 지도하였다.

⁷² Chang Ki Lee, *The Early Revival Movement in Korea (1903-1907)* (Utrecht: Universiteit Utrecht, 2003), 144-145. 이 책은 우트레히트 대학에 제출된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이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런 귀신과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살며, 우상을 숭배하던 한국 사람들에게 영적인 해방을 가져다주었다.⁷³

기독교가 변혁시킨 커다란 사회 개혁 중 하나는 이러한 우상 숭배 사상을 무너뜨린 것이다. 미신적 굴종에서 벗어나 광명의 빛을 본 사람들의感激과 변화된 삶의 기록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우상 숭배의 집행자들이었던 무당이나 관수들의 회개가 많았다. 교회가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상이나 미신의 폐해를 조리 있게 가르치며 우상이나 미신이 우리를 불운이나 불행으로 몰고 간다는 허황된 망상과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쳤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이러한 무속신앙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전국적으로 퍼져 많은 국민이 몰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과 사명을 재인식하게 된다.

4) 술, 담배, 금창과 아편의 금지로 국민 건강 보호

한국교회의 절제운동은 금주, 금연, 금창(禁娼)뿐 아니라 아편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술은 당시 전 국민의 정신을 마비시켜 버릴 위기에 도달해 있었으며, 아편이 전매행정 처리로 취급되고 있는 심각성을 보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절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금주 시위행렬까지 행하기도 하였다. “술이 있고서는 경제학자들이 부국론을 부르짖고 사회주의자들이 계급 철폐와 평균 분배를 외친다고 하여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더 빚어낼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교회는 영적인 부활을 강조하며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악성을 개조하여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절제운동은 ‘오직 조선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

⁷³ Ibid, 144-145.

으로 “동포여, 조선 안에서 술 담배로 소비되는 돈이 총합 103,893,824.00 원이다. 동포여, 우리의 당면한 대문제를 해결함이 오직 금주 단연함에 있는 것이다. 이 액수는 백 평 기와집 94,448채, 그리고 519,469명의 생활비, 소학교 800교, 고등학교 600교의 교육비로 각각 환산되었다.”⁷⁴

1890년 중반부터 술에 대한 교회의 철저한 금지가 시작되었다.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통하여 교회가 그것을 금하게 된 배경을 볼 수 있다. 인간성 왜곡과 삶의 혼돈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 교회 금주의 핵심이었다. “술로 인하여 패가하고 망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 교회는 술을 많이 먹는 것을 금하는 것만 아니라 한두 잔이라도 금하고 또 그뿐 아니라 술장사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재화를 크게 해치는 것이 술이므로 옳게 생각하는 사람은 술을 없이 하기를 힘쓸 것이니 술은 수고하여 모은 재물을 빼앗으며 결인과 죄인을 만들고 집을 망치며 헐잡과 퇴물과 사경에 도달하게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하고, 유익한 곳에 쓸 돈을 해로운 일에 허비하여 항상 궁색하게 하니, 만약 술에 없애는 재물을 일상생활에 쓰면 다 흥왕하고 돈 없어서 어려워하는 일이 구름처럼 없어질 것이니 경제상으로도 도덕상으로도 술은 없이 할 물건인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두니 이상한 일입니다.⁷⁵

초기에는 경제적, 도덕적 이유와 새 역사의 사명감을 강조하였으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주와 금연의 성경적 근거를 들면서 더욱 강화해 나갔다.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 교회법의 불이행, 부모형제에 대한 잘못된 말들, 자신의 몸에 대한 해독을 말하며 금하였다. 그리

⁷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427-428.

⁷⁵ 〈회중신문〉, 1987.12.29

고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를 과히 먹는 사람은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염통이 벌렁벌렁하고 수전증이 나고 안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많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1910년 교회는 신체상, 정신상, 경제상 해독이 많음과 우리 영혼의 거룩한 집을 더럽히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금지해 나갔다.

아편에 대한 교회의 투쟁도 철저하였다. 오히려 정부의 금지조항이 느슨하다고 보아 몇 해 안에 백성의 씨가 없어질 만큼 위험한 사회적 병균인 것을 고발하며 교화해 나갔다. “일제는 1918년 아편 재배를 위하여 18만 2천 불의 총독부 예산을 세워 야만적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한 선교사는 자기 선교구역 안에서만 13개소의 아편 재배 밭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⁷⁶

1905년 평양의 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약방에서 연 평균 하루 30원 어치의 아편을 매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 교회 병원에서 한 달 평균 35인 정도의 회생 불가능한 아편 중독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물론 전에 청국 상인이 아편을 조선에 밀매하였다. 그러나 그 피해는 지금 같지 않았다. 교회의 저항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하다.⁷⁷

술과 담배의 절제로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겪는 많은 아픔들이 있다. 그러나 술과 담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더욱 조심하며 삼가는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 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 가정을 지키며, 건강을 지키며, 창기와 짝하는 죄악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편이 일반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어지럽히려고 하던

⁷⁶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164.

⁷⁷ *Ibid.*, 164.

일제시대에 시기에 맞는 정책을 선언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6.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1) 고난과 절망 속 이민 동포와 동행하는 한국교회

러시아 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고국 강산을 이별하고 의지할 것 없이 외로운 나그네로 불쌍히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생명이 50만 명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최관홀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만주를 찾아가는 한국의 실향민들은 엄동설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헌옷을 걸친 무언의 사람들 한 떼가 열 혹은 스물, 쉰씩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눈 덮인 산 언덕을 넘어 힘없는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만주의 나무 많고, 돌 많고 버려진 땅에, 생사를 걸고 이들은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여럿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기도 한다. 부녀자뿐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얼어서 죽어가고 있다.⁷⁸

한국교회는 1909년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 유학생들을 위해 파송하였으며,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창립총회가 조직된 후 그 기념으로 미국 선교사들도 어려워하는 지역인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외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교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돕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 온 것이다.

⁷⁸ Ibid., 276.

2) 반일사상과 애국하는 교회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명성황후를 그의 침전 옥호루에서 일본 무장인들 손에 무참하게 숨지게 하고 그의 시신을 경복궁 뒤뜰 녹산에서 채가 되도록 소진되게 하였다. 이 충격은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였으나 이런 살인범들을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나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고종 황제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한 상황에 있을 때, 왕실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반일 애국의 인도주의적인 길을 걸어갔다. 명성황후 사건 당시 통역을 맡았던 게일 선교사는 국왕이 처절한 모습으로 흐느껴 울며 명성황후를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면서 누가 이 비참함에서 구원해 준다면 머리털을 잘라 신발을 짜서 국모의 죽음을 갚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명성황후가 시해진 이후에 일본 사람 몇을 붙들어 오긴 했지만 모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버렸고 고종 황제도 일본이 두려워 세자를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간이나 도망가 지내야 했던 처절한 시대 상황이었다. 아관파천은 “을미사변 후 극도의 불안함애 빠져 있던 고종 황제가 스스로 결심하여 결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신교는 이처럼 나약하고 위태로운 황제를 황제답게 모셔야 함을 온 국민들에게 알게 하고 황제의 신원을 살피며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 상태에 있을 때 “1896년 9월 2일 고종의 탄신일을 맞아 서울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경축행사를 개최하였다. 교인들은 모화관에서 경축회를 가지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리 준비한 찬양가로 “높으신 상주님”가를 부르며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직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황제를 바라보며 그가 서야 할 자리에 서도록 기도한 것이다. 또한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아관에서 현 창경원으로 환어할 때에도 교회는 태극기를 높이 달고 전 국민이 뜨겁게 왕실에 충실하도록 하며 기

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국왕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공분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밤을 지새우며 위협을 막아주기도 하였다. 초기 수적으로는 매우 미약한 조선교회였지만 알렌과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왕실과 국권이 가장 위험한 시대에 왕실의 협력자로 일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왕실이 이처럼 나약했을 때 국민의 생활과 삶은 어떠했는가!

재산은 강탈되고, 부녀자들은 욕을 보고, 남자들은 강제노동에 혹사되며 억울하게 구타된다.⁷⁹

교회가 반일하는 것은 그들의 비인도적이며 강제적인 강탈을 막으려는 정당방위였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1904년 노일전쟁 때 “서울과 특히 평양에서 군사 수용을 구실로 막대한 농토를 수탈했다. 서울의 경우도 남산과 한강 사이의 광대한 옥토를 징용하고 거기 농민 150호를 무일푼 보상 없이 철거시켰고, 평양의 의성에서는 3천 에이커의 땅을 역시 강탈한 사건이 1905년 여름에 터졌다.”⁸⁰ 이뿐 아니라 “평양에서만 1904년 234,000정보, 1905년 580,000정보 수탈과 200여 농가구의 무보상 추방으로 강탈을 자행한 일제 군부는 1906년 7월에는 8천여 농가구를 추방하고 3,400,380 정보의 농토를 계속 수탈하였다.”⁸¹ 일제는 이러한 강탈행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농토를 수탈당하고 집을 몰수당하여 오갈

데 없게 된 이들이 살 곳을 찾아 간 곳이 만주나 시베리아였다. 조선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장투쟁은 삼가고 정신적인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정당한 합법적 처우를 요청하였다. 나라의 위기를 맞아 나라를 탈취하려는 일본의 만행에 동조할 수 없었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일본은 독일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그들의 죄악을 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모든 범죄를 은폐하며 사죄하지 않는 야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이 언제 진정한 참회를 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보며 진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행했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애를 발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리라고 생각된다.

⁷⁹ Missionaries and Politic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910. 3월호.), 230.

⁸⁰ <대한매일신보>, 1905. 10. 18.

⁸¹ The Pyung Yang Land Case, The Korea Review (1906. 7월호).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¹

The Hindrance Element in the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 안명준 Ahn, Myung Jun

- 합동신학대학원(M.Div)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Th.M.,)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 남아공 Univeristy of Pretoria (Ph.D.)
-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지금 세계는 매순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전과 변화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변화와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사상적 경향과 삶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즉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 방식이 해체되고 있다. 지금 현대사회는 탈권위주의, 탈전통주의, 탈이성주의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¹ 이 논문은 2007년 제9호 조직신학연구에 발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현상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국교회 역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세상의 물결의 세파에 밀려 요동치고 있으며,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 정상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교회는 노년 성도들과 어린아이들로 구성되어 교회 존립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으며,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점점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목회자들 역시 많은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가정적 파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벌써 많은 신학적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점점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으며,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며, 교회를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신학자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고, 듣기 좋고 부담 없는 인간의 감각적 소리들로 가득한 영혼의 웰빙 하우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멀지 않아 한국교회는 그 근본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성하며 1907년의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 번 이어받기를 소망하였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²이란 무엇

² Jonathan Edwards는 부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revival of religion is a blessed outpouring of the Spirit of God, in awakening and converting sinners, and in enlightening, quickening and building up saints in faith, holiness and comfort." R. E. Davies, "Revival, Spiritual,"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ed., W. Elwell (Grand Rapids: Baker, 2001)

인가?

부흥이란 문자 그대로 쇠(衰)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일까? 한국 교회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로 교회 성도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참된 성경적 부흥이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온 세상에 넓히는 영적 운동이다.³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며,⁴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죄의 세력이 강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위기의 현상이 나타나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헛된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무지로⁶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파괴된다.

³ 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행 1:34,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⁴ 행 2: 42-47,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⁵ J. I. Packer는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 “Revival, Theology,” New Dictionary of Theology, ed., Sinclair B. Ferguson and David F. Wright (Downers Grove: IVP, 1988), 한글번역판은 “부흥의 신학,” 《아가페 신학사전》(서울: 아가페, 2001).

⁶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논문은 한국교회가 성장과 성숙에 불안을 느끼며, 복음 전파와 선교 그리고 구제에 있어서 역동성을 잃어가는 위기의 시점에서 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방해 요소들을 알아본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J. I. Packer)는 부흥의 장애물로서 불신앙(unbelief), 이교신앙(misbelief), 무관심(apathy), 죄(sin)를 말한다.⁷ 그의 경고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부흥의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학문화되는 것과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 양적 팽창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교회 분열,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소홀, 근본주의 신학과 이원론, 교회의 세속주의, 그리고 투명성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⁸ 필자는 이미 몇 년 전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이런 요인들을 지적하였다.⁹ 심지어 한국교회는 종교의 성스러움까지 잃어버렸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⁰

⁷ New Dictionary of Theology.

⁸ “목회자가 하나님 닮아가야 부흥: 송실대 부흥 모색 세미나” [국민일보 2007-05-06 15:21],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인격이 바로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3일 주관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나겸일(주안장로교회) 목사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한다 해도 목회자의 인격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며 부흥은 목회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나 목사는 이날 강의에서 한국교회 성장이 멈춘 이유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학문화되는 것과 기도의 열정이 식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흥을 위해서는 보수 신앙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재 교수·손인용 목사, 교계에 쓴소리:교회 양적 성장 한계……내실 기할 때,” [국민일보 2007-04-29 18:28], “교계 원로인 덕수교회 손인용 목사와 한신대 명예교수 김경재 목사가 한국교회를 향해 고언(苦言)을 던졌다. 이들은 27일과 28일 충북 영동군 단해교회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조직신학자 대회’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 이후기를 맞아 회개와 화해를 통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 초고속 성장에 도취되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성장 이후의 교회와 신학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는 양적 팽창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교회 분열,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소홀, 근본주의 신학과 이원론, 교회의

세속주의, 투명성 부족 등이 한국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올바른 교회론의 정립, 포괄적이고 입체적 선교 전개, 교육 목회의 강화, 나눔과 섬김의 목회 실천, 예배와 설교의 부단한 갱신, 교회 조직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교회는 재부팅 중” “성경통독은 미래교회의 새로운 가치” [연합뉴스, 2007-05-21 18:59], “교회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교회는 재부팅 중입니다.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저서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를 파내고 미국 개신 교계에 끊임없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세계적 기독교학자 레너드 스윗 드루 대 석좌 교수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윗 박사는 먼저 현재 교회들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컴퓨터에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면 ‘조각모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재부팅하듯 교회도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부팅’을 통해 제거해야 할 요소를 A(actional, 유인적)·P(propositional, 명제적)·C(colonial, 강압적)로, 부활시켜야 할 가치를 M(missional, 선교적)·R(relational, 관계적)·I(incarnational, 성육신적)로 정리했다. 스윗 박사는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음에도 지금 교회들은 사람들을 자꾸 안으로만 끌어들이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교리나 명제적 진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교회의 생각을 따르라는 식의 강압적 방식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⁹ 안명준 외,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서울: 이집비즈넷, 2006), 13-34. 최근 웨슬리학회 신학자들의 회개와 갱신을 위한 선언도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웨슬리학회 신학자들 한국교회 물질주의 회개합니다” [국민일보 2007-05-25 18:28], “한국웨슬리학회가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교회의 물질주의와 기업주의를 회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회의 회개와 영적 갱신을 위한 선언문’ 95개 조항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문을 모델로 한 것으로 회개와 관련된 80개 조항, 갱신을 위한 15개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한영태 전 서울신대 총장 등과 성도 700여 명은 이날 선언문을 교독하며 존 웨슬리의 회심과 100년 전 평양대 부흥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하고 크리스천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선언문 초반부는 한국교회의 전체적 흐름을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제1항과 2항은 각각 ‘우리는 한국교회의 물질주의화를 회개한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기업주의화를 회개한다’ 등으로 경쟁적 교세 확장에 매달려온 점을 반성하는 내용이다. 이어 3~8항은 교회의 세속주의와 이기주의, 배타주의를 꼬집고 있다.”

¹⁰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연합뉴스 2006-11-30 17:05].

“개신교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경제지상주의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사회학자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는 30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 교수)와 연구모임 ‘일상과 초월’이 주최한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

2. 부흥의 방해요소들

교회의 수적 증가와 목회자들의 과잉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점점 많은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여러 언론보도에 나타난 것들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믿음보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

근대 이후 인간은 신을 버리고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하고 주체적 기준으로 여겨왔다. 계시의 권위보다는 인간 이성의 권위를 더 중요시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였다. 성경의 사건과 내용을 믿기보다는 파괴적인 역사비평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체하여 종교적 문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믿음 위에서 역사하는 인간 이성이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중생한 크리스천이 이성을 계시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할 것을 인정한다.¹¹ 그러나 현실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오성에 따른 현실세계에서 인간 이성만을 의존하고 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는 인정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관을 믿지 않는다.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는 외부에서 오기보다는 오히려 크

‘톨릭 성장’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한국 개신교가 당면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¹¹ fides quaerens intellectum, 또는 credo ut intelligam.

리스천 자신의 내부적 요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구원의 믿음은 환영하지만, 이성을 굴복시키고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은 회피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사막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감한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동반한다. 그 행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낸다. 이성이 지배하는 삶은 믿음이 종속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그의 말씀을 의심케 하며,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한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말하기를,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 우선적 관심을 가지며, 공의를 주장하고 불의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한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라면 가난하고 억울한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 2:14)라고 했다. 그는 또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 2:22)라고 했다.

2) 도전의식과 거룩한 열정의 상실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적그리스도적 환경과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세속주의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고 타협한다.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 교회도 이런 세속화의 파도 속에 묻히면서 서서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다.

1980년도 이전의 목회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요즘 세대의 목회자들은 힘든 것에 쉽게 포기하고 교회를 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술과 방법을 찾는다. 이처럼 교회도 성결과 구별 그리고 비성경적 문화들을 거부하는데 거룩한 열정을 상실하고 쉽게 교회 성장 방법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영화 “알렉산더 대왕”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진 자가 역사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¹² 그의 비전의 열정이 그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전의식에 대한 열정이 식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종 바울로 변화된 것은 주님이 그를 불러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¹³ 그 사명은 땅 끝까지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복음의 능력은 개인을,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속화의 물결 속에 묻히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는 부패와 흑암으로 빠져든다. 교회는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속화된 교회를 치료하고 부패된 사회의 구조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정석 박사는 교회가 세속화되면 미래는 없다고 한다. 그는 세속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럽 종교사회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마틴(David Martin)은 세속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고,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되는 제1단계에서는 교회가 흥왕하고 교인도 증가하지만, 점차 그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제2단계에서는 급격한 탈교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실

¹²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대사 톨레미(안소니 홉킨스)의 내레이션에서 “The glory in the memory of man always belongs to the one who follows great visions.”

¹³ 행 9:6: σοι τί σε δεῖ ποιεῖν.

로 기독교가 복음을 상실한다면 아무 능력도 실체도 없다.¹⁴

3) 말씀 연구에 소홀함

수년 전 한국을 방문한 강해설교의 대가 데니스 레인(Denis Lane) 목사는 교계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요소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더불어 교회의 신학도 성경으로부터 떠난 점을 말하였다. 오늘날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도 바로 데니스 레인이 영국교회를 진단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말씀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¹⁵ 단지 말씀을 통한 축복만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위로를 위하여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뿌리는 사경회인데¹⁶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킨 것이다.¹⁷ 오늘날의 부흥회는 부흥사 자신의 의도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

하여 회개와 성화의 역사로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시는 그 저자인 성령님의 의도를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인간의 신비스런 경험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현 부흥회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멀어지고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신비적이며 풍요적인 해석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해야 한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요, 신학의 기초, 기독교 윤리의 기초이다.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명료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성경은 그 자체로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기에 다른 교회의 보조물(전통과 회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로마교회를 개혁하였다. 성경은 교회를 검증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칼빈은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명령되었다고 한다(강요 4.1.5).

¹⁴ <http://www.jsrhee.com/UE/>, “세속화된 교회는 미래가 없다.”

¹⁵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5-21 18:59, “성경통독이란 성경을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스토리를 생각하며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의 한 방법. 즉 성경을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적 방법으로 읽는 것이다.

스윗 박사는 “성경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읽고 함께 감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서구 사회는 성경을 분석적이며 이분법적 시각에서만 다뤄왔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분석만 한다면 결국 그 대상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성경통독’의 방법 속에 **MR**가 모두 깃들여 있다”고 강조했다.

¹⁶ 정일웅, “사경회와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의의,” 11-29, 〈한국개혁신학회 제22회 정기학술심포지엄〉, (2007, 5), 12.

¹⁷ “한글교육·성경읽기 병행 평신도 중심 전도 폭발력: 한국교회 성장 비결,” [국민일보 2007-02-02 18:14]. 그는(머펏 목사)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과,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서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이라면서 “특히 나의 아버지(마포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초기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면서 성경 교육에 힘썼고, 한국인 목회자와 평신도들까지도 성경공부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고 초기 교회의 모습을 전했다. 머펏 박사는 “특히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면서 “사경회(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모임이란 뜻)를 통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사경회에 참석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주효했다”고 꼽았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 한국 성도들의 신앙관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약한 신앙관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교회 안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지만 신학자나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보이는 현상만을 중시하여 성경 안의 기본교리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회자의 깊이 있는 성경 해석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서나 교리서와 같은 좋은 역사적 문헌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성경의 뼈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개혁의 거부

세상은 나날이 변화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기존의 전통과 방식을 지나치게 고수하다 귀중한 세월 다 보내고 뒤늦게 고치려고 한다.¹⁸ 변화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기독교의 본질을 변화시켜 타협적으로 변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변질이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적응(accommodation)시키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적응원리를 사용하셨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모두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¹⁹ 그의 부르심을 위해 자신의 전도방식을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아도 교회의 사역은 시대와 문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루터는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관을 변화시켰다. 잘못된 교회와 사회는 항상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말씀 앞에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바르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인류의 변질된 죄악의 문화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니버는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 변혁의 주체라는 것이다. 변화를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바람직한 성경 해석자는 성경과 자신이 사는 시대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사고를 시대에 맞게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성(transformation)이란 개혁신학의 강력한 힘이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에 묶여서 정지된 신학이기에 기존의 자신들의 전통의 변화를 허락하지 않으며, 개인의 성경 해석을 금하지만, 개혁신학은 성경에 의하여, 성경을 향하여 항상 새롭게 온전하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학이다. 따라서

¹⁸ <http://www.inbora.com/ez2k/ezboard.cgi?action=read&db=board7&dbf=1224>. 하용조 목사 설교, “영국의 테니스 레인 목사님 맥을 방문했을 때 집 가까운 곳에 아주 큰 웅장하고 옛스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테니스 레인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꼭 찾았는데 요즘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건물이 좋아서 조금씩 고치면 더 나을 것 같았는데 성도들의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문화에 맞춰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 전에는 성도들이 그곳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곳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¹⁹ 고전 9: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전 9: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인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개혁신학에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은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 시대에 맞게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해석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었으며, 자신들은 이것을 사역의 소명으로 보았다. 따라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행위는 교회를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며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된다. 루터와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경우에서 그들의 올바른 성경 해석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세워진 개혁 교회는 사회와 역사를 주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²⁰

목회자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는 복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며,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대화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며, 받기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권위적인 자세보다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언제까지나 산 위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오도록 부르기 보다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죄악을 물리치고, 썩어가는 곳에서 희생의 모습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기다림보다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봐주며 새롭게 치유하는 능력의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보다는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다.²¹

5) 기복신앙

기독교는 복을 구하고 받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마 6: 33).²² 현세의 축복을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아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은혜로 알려주어야 한다. 번영의 신학에서 고난과 감사의 신학으로 움직이게 역할을 해야 한다. 몇 년 전 〈주간 기독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 축복이 온다는 생각은 사머니즘을 통한 부정적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정적 영향을 말하는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물질관). 그러나 사머니즘을 통한 예수와 물질적인 정비례는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는 위험을 만들었다. 그렇게 행해진 것이 바로 ‘예수=복(물질)’이라는 도식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복’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때, 가령 올바른 믿음의 신자가 질병을 얻었다든지 가난하든지 하면 그 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한 것은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²³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은 종말론적인 것을 한국교회는 실천할 필요가

²⁰ 안명준, “21 세기를 위한 해석자,” <http://theologia.co.kr/> 논문, 18.

²¹ 눅 8:1, “그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²²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²³ <http://www.theologia.co.kr/기독교윤리>.

있다. 현세에서 모든 육적 축복을 추구한다면 무속신앙과 별 차이가 없다. 교회의 봉사와 축복관계로 바르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교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기복종교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현세적인 축복으로 저평가된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이다.

6) 기독교 세계관의 부재

잘못된 이원론을 갖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이원론적 사고로 행동한다. 이것이 극단화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지나치면 광신적 종말론자로 기독교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준다. 반대로 참된 기독교의 이적과 신비를 부인하고, 자연신론자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환상의 에덴동산지기가 된다. 추방된 인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 현대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영생은 보장되지 않는다. 생명이 길면 길수록 인간은 죄의 동산을 피의 강으로 넘치게 할 것이다.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서 문화와 세계관의 강조는 더욱 시급하다. 문화란 인간이 사용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말씀으로 변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칼빈은 제네바 도시의 문화형식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켰다. 쉴더(K. Schilder)는, 그리스도는 문화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이퍼(A. Kuyper)

는 하나님의 주권이 교육, 정치와 문화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와 이웃 그리고 세계가 어울려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이런 공존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회가 이웃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오늘날 기독교 문화의 무지를 한탄하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역설하였다. 크리스토퍼 슈뢰벨(Christoph Schwobel)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복음을 해석하고 실천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면서 “대사회적 실천운동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²⁵ 스위트 교수(Sweet)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과 더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다”며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대립하지 말고 다름과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²⁶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는 관점, 혹은 어떤 전제를 통해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거듭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천지 창조, 인간 타락 그리고 만물의 회복을 성경에 나타난 구속 계시에 근거하여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과 세계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된다. 이런 정립을 위해서 먼저 성경적 세계관의 전제가 필요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의 섭리

²⁴ 하워드 스나이더, 《천국의 선언》, 안명준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²⁵ <국민일보> 2007-03-30 16:07.

²⁶ <경향신문> 생활/문화 | 2007.05.17 (목) 오후 6:18.

에 의해 보존되며, 하나님에 의해 설계된 뜻에 의하여 목표를 향하여 간다는 믿음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아담의 죄로 오염되고, 인간의 삶은 왜곡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 바깥에서는 구속사적, 목적론적, 발전적인 역사를 알 수 없다.²⁷ 역사는 하나님의 여러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방식인 것이다. 물론 구속사는 세속사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시편 103편 19절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분에 의해서 과거의 모든 것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도 결정된다. 새로운 세대는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역사의 모든 것은 그분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²⁸ 한국교회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7) 다양한 전도방법의 부재

한국교회는 기존의 노방전도방식(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나 기타 전도지를 사용하여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많은 불신자들이 전도의 내용에 관심두지 않고 기존 전도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노방 전도 방식은 교인들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개교회의 숫자적 증가를 위한 전도가 아닌, 진정한 부흥을 위한 전도의 방법론이나 이론,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교회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인간적인 기술과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

실이다.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방식이 더 중요하다.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도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는 ‘전도학 강의’에서 “대상자와 인간관계를 맺고 두터운 정을 쌓으며 그 신뢰로써 전도 대상자를 구원의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며 “‘한국형 전도원리’가 필요하다”고 일깨우고 있다.²⁹ 최근에 한국적 전도 방식으로 오이코스 방법은 관계 중심적 새로운 전도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³⁰

전도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과 실천과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웃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함께 공존하며 나누는 행사를 통하여 교회의 존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커버넌트 신학교 바르스 교수의 문화 전도방법은 문화를 접촉점으로 전도하는 방법이다. 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수가 성 여인과의 대화는 기존의 사회통념을 깬 존중이다.
2. 상대방을 이해하라. 전도 전 예상되는 반응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3. 언어를 준비하라. 사도행전 17장, 22-26장에서 필요한 언어구사가 요구된다.
4. 복음을 위한 접촉점을 만들라. 복음을 받을 대상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5.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라.
6.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라.

²⁹ <http://www.godpeople.com/> <뉴스미션> 02-15 07:10.

³⁰ <http://www.oikoskorea.com/>. “‘oikos’는 집(house)과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친척, 고용인, 방문객까지도 포함하는 확장된 가정)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행 16:31). 오이코스 전도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직장동료, 클럽회원 등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인간 유대 관계망을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형 관계 중심 생활전도입니다.”

²⁷ J 캠퍼이스, 《교회사가 비취주는 종말론과 정경》(서울: 도서출판영문, 1992), 173.

²⁸ 안명준, “종말론과 해석자,” 《복음과 신학》(2004), 7.

7. 도전적으로 하라.
8. 상상력을 사용하라.

전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다양하며 실제적인 성경적 전도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8) 목회자의 위기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의 핵심에 목회자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¹ 목회자는 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며, 위기의 영향력에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바로 목회자들로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점(목회자의 교회관과 목회사역)과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핵심에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다.³² 이런 비판적인 인식은 교회 내부와 외부에 의해서 비쳐지고 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러운 일로 함부로 인신 공격적으로 해서 안 될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성경적 근거에 따른 비판은 언제나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목회자들 가운데 객관적으로 존경받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언론에 비판적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평신도들과 많은 불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부흥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흥의 걸림돌이 바로 목회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직자들의 부패와 부도덕 그리고 타락은 결정적으로 교회 부흥에 타격을 준다. 목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캔터베리 교회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 Sayers, 1893-1957)³³의 작품 〈The Zeal of the House〉가 있다. 그 내용은 건축가 윌리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에 탄 새 예배당을 지금까지 세워진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으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공 전 사고로 그는 고해성사를 통해 그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는 윌리엄의 죄로 사고가 난 것을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예배당 공사에 열심을 내었다고 책망을 받는다.

교회 부흥은 결코 목회자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교회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³⁴

³³ Rev. Henry Sayers의 딸인 그녀는(British novelist, essayist, medieval scholar and anthologist) 영국 옥스퍼드 출신으로 신학적 드라마도 썼다.

³⁴ 이종윤,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사명,”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서울: 이컴비즈넷, 2005), 256-257.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피나는 수련을 통해 만들어진 이상적 지도자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섬기는 종으로서 사명에 찬 사람들이다. 그들의 행동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방법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의 동기로 삼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따라서 그의 소유권, 회수권, 감사권, 사용권을 인정하고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성경)에 절대 복종하며 청지기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지도자들이었다.”

³¹ “목사 권한 너무 크다” 〈문화일보 2006-11-30 14:08〉. “목사의 인사권 전횡 및 불투명한 재정 운용, 목사의 성 문제, 강단의 사유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갈등이나 목사와 장로의 갈등, 교인들의 직분 매매, 교회의 배타성과 정치세력화……”

³² 2004년 10월 2일 방송된 KBS 시사교양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46회〉, “선교 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기 교과/자기 교회 중심(40.3%), 교회의 대형화/ 성장제일주의(23.9%),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12.6%), 비민주적 의사 결정/ 불투명한 재정 운영(9.5%), 세습(5.8%)이다.

9) 공동체 의식의 파괴

지금 한국교회는 사사기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개교회 중심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 그런 경향의 결과로 이단들도 기세를 부리고 있다. 한 몸으로서 한국교회가 아니라 각자 믿고 따르는 규칙이 다른 기독교 종교로 둔갑한 현실이다. 주장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분열과 장벽이 심해 질 수밖에 없다. 지교회도 모든 공동체 회원이 각자의 소신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두가 모여야 한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다스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파의 벽이 높고, 개교회주의 성격이 강한 한국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일체의식 속에서 하나 됨의 교회운동이 필요하다. 물론 교리와 예배의 형식이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에 일치하는 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슈비벨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근거해 전파 사역에 집중할 때 연합과 일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³⁵ 올바른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하나로, 한 몸으로, 형제와 자매로, 영적 가족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3. 결론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은 부흥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 임재하여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다. 이런 부흥에 있어서 방해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무지

하여 일어난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바르게 갖지 못한 것이며,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고, 성직자들이 올바르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흥이란 잘못된 세계관을 말씀으로 수정하고, 이 세상이 결코 천국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자가 깨어 충성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말씀의 해석자요,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는 더욱더 겸손히 섬기며, 신뢰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질문해 보자. 무엇 때문에 부흥을 원하는가? 그것이 나의 존재의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부흥의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경고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부흥의 방해 요소들을 하나씩하나씩 제거하는 것이다.

³⁵ [국민일보 2007-03-30 16:07].